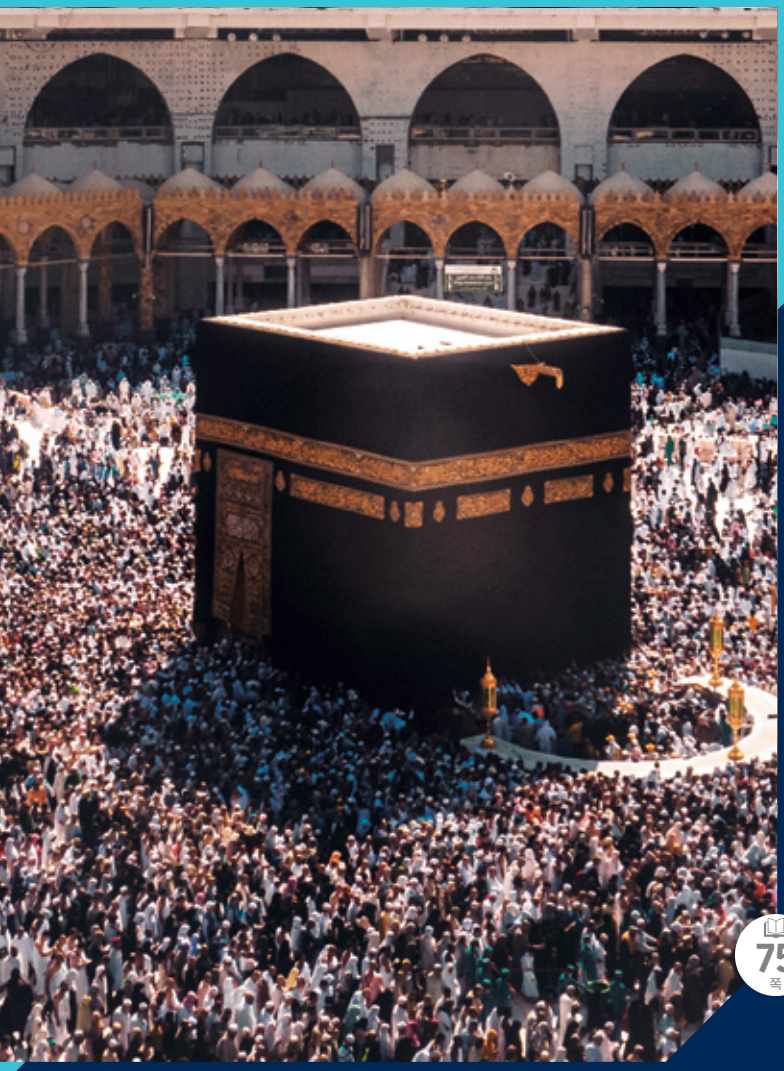
62 쪽

한족이 아닌 선비족 출신 황제들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불교를 권장하고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79 쪽

카롤루스 대제는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더 많은 땅을 교황에게 바쳤다.

75 쪽

이슬람교도는 평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II 세계 종교의 확산과 지역 문화의 발전

1.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과 발전
2.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3. 지역 문화의 교류와 충돌

이번 중단원에서는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문화가 만들어진 역사적 맥락을 탐구할 수 있다.



주제 9

유목민과 융합하며 발전한 중국

관련 주제 → 주제8(52쪽)

핵심 질문

유목민이 화북에 여러 나라를 세우면서 중국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01 중국의 분열과 남북조 시대의 시작

3세기 초 후한(52쪽 참고)이 멸망한 후, 중국은 위·촉·오로 분열됐다. 위를 이은 진(晉)이 중국을 다시 통일했지만 혼란은 계속됐다. 이미 만리장성을 넘나들던 흉노, 선비 등의 유목민들은 이 혼란을 틈타 화북(황허강 중하류 유역과 그 북쪽 지방)을 점령하고 여러 나라를 세워 경쟁했다(❶**5호 16국**).

유목민이 화북을 장악하자, 진의 유민들은 창장강 유역의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 동진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화북의 농업 기술이 전해지고, 농경지 개간(거친 땅을 논밭으로 만드는 일)이 활발히 이뤄져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었다. 여러 나라가 난립하던 화북을 선비족이 세운 **북위**가 통일했고(북조), 강남에서는 동진을 이은 한족 왕조들이 세워졌는데(남조), 이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한다.

❶ **5호 16국** 5호는 흉노, 선비, 갈, 강, 저의 다섯 유목민을 뜻한다. 16국은 유목민이 화북에 세운 여러 나라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16개보다 더 많았고 한족이 세운 나라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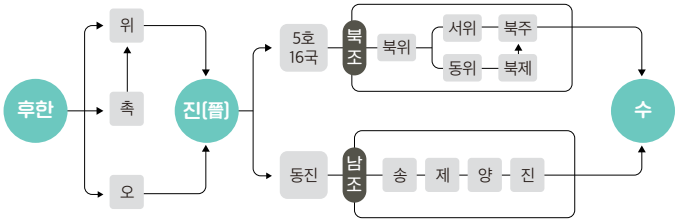
삼국지 연의



→ 남북조의 영역(5세기)



↓ 위진 남북조 시대의 전개



유목민들은 왜 이동했을까?



02 북위의 한화 정책과 유목 문화의 확산

유목민이 세운 화북의 여러 나라는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다. 북위의 효문제는 통치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한족의 제도와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다.

균전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그 대가로 세금을 거두는 균전제를 시행했다.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의 생활이 안정되어야 국가가 오래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한화 정책 유목민과 한족 간 갈등을 줄이고, 통치 체제를 튼튼히 하기 위해 한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유목민과 한족의 결혼을 권장하고, 한족의 옷을 입도록 했으며, 한족의 언어뿐 아니라 한족의 성과 이름을 사용하도록 했다.

효문제의 **한화 정책**에 일부 선비족이 반발해 북위가 분열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유목민과 한족의 융합이 이뤄지고 통치 제도는 더욱 발전했다. 이는 선비족 출신들이 수와 당을 세우는 토대가 됐다(64쪽 참고).

• 중국에 전해진 유목 문화

의복 솔이나 망토, 바지 같은 유목민의 옷이 유행했다.

음식 양고기와 젖을 먹게 됐고, 밀가루 반죽을 화덕에 구워 먹는 빵도 즐기게 됐다.

주거 침대나 의자가 전해져 입식 생활에 익숙해졌다.



03 귀족 사회의 형성과 새로운 사상의 유행

잦은 왕조 교체로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추천으로 관리를 뽑는 제도를 악용해 힘 있는 몇몇 가문이 관직을 독점하면서 **귀족 사회**가 만들어졌다. 귀족 가문은 서로 혼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지위를 강화해 갔다.

한편 사회가 어지러워지자, 불교와 도교에 의지해 안정을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졌다(62쪽 참고). 특히 남조에서는 ❷**청담 사상**이 유행했다. 정치적 혼란에 지친 귀족들은 세속을 떠나 자유롭게 사는 죽림칠현의 삶을 동경했다.

❷ **청담 사상** 어지러운 세상일을 입에 담지 말고 맑고 깨끗한 이야기만 하자는 사상이다.



↑ **죽림칠현** 현실을 피해 대나무 숲으로 숨은 일곱 명의 선비이다. 유교 예절이나 관습을 부정하고 자연에 머무는 자유로운 삶을 강조했다. 이런 도가적 삶의 추구는 남조의 정치 혼란을 반영한 것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유목민 왕조가 화북에, 한족 왕조가 강남에 세워진 시기를 □□□ 시대라고 한다.

❷ **생각 UP** 북위와 같은 유목민 왕조가 왜 한족의 통치 제도를 받아들였을까?

생각 쑥쑥 탐구

중국에 뿌리내린 불교와 도교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유교와 함께 불교와 도교가 성행했습니다. 불교와 도교는 이후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시기에 불교와 도교가 왜 발전했는지 알아볼까요?



01 위진 남북조 시대의 불교

후한 시대 비단길로 전해진 불교는 위진 남북조 시대에 인도와 서역에서 승려와 불경이 들어오면서 더욱 발전했다. 익숙한 유교나 도가의 개념을 빌려 교리를 설명했기 때문에 불교는 중국인에게 한층 친숙한 종교가 됐다. 이 시기 불교는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는데, 특히 '왕이 곧 부처'라는 생각은 왕권 강화에 도움을 줬다.

북조 북조의 황제들은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불교를 활용했다. 황제의 모습을 본떠 거대한 불상을 만들거나 웅장한 석굴 사원을 지어 황제의 권위를 과시했다.

남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된 남조에서 불교는 마음의 위안을 주는 종교로 널리 받아들여졌다. 특히 귀족들은 청담 사상이나 도교처럼 불교를 통해서도 세속의 번거로운 일에서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였다.



룽먼 석굴(중국 뤄양) 북위 시대 때부터 시작해 당대까지 만들어졌다.



윈강 석굴(중국 다퉁) 한족이 아닌 선비족 출신 황제들은 황제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고심했고, 그 결과 불교를 권장하며 거대한 불상을 만들었다.

02 위진 남북조 시대의 도교

한대부터 민간에서는 도가적 신앙이 유행했다. 황건적의 난도 도가 집단이 일으켰다. 위진 남북조 시대에는 이런 도가적 신앙을 바탕으로 불로불사를 추구하는 신선 사상, 복을 비는 민간 신앙이 합쳐져 도교로 체계화됐다. 도교는 노자와 장자를 비롯한 여러 신선과 신령한 동물을 숭배하고, 주문·부적·도술 등으로 화를 막고 복을 빌기도 했다. 몇몇 국가는 도교를 지원해 불교를 견제하는 등 통치 수단으로 활용했다.





↑ **「송자천왕도」에 묘사된 신선**(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 도교는 신비로운 힘을 가진 신선이나 도술을 부리는 도사를 숭배하고 신기한 동물을 상상했다.

← **도교삼존상**(일본 도쿄예술대학교미술관) 도교는 불교와 경쟁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다. 노자를 삼존상으로 숭배한 것도 삼존불상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도교는 중국에 전해 내려온 다양한 사상과 신앙이 혼합된 종교구나.



신비한 약을 만들어 먹으면 불로불사 한다고 믿기도 했대.



↑ **백제 금동대향로**(국립부여박물관) 뚜껑의 봉황이나 몸체를 떠받치고 있는 용, 몸체에 새겨진 산과 악기를 연주하는 신선 등은 도교의 영향을 잘 보여 준다.

↓ **도교 사원에서 향을 피우며 소원을 비는 중국인들**



함께 탐구해요

❶ 민간에서 불교와 도교가 유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❷ 논술 UP › 불교와 도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됐을까?

주제

10 당의 발전과 동아시아 문화

관련 주제
- 주제14(82쪽)
- 주제17(102쪽)

핵심 질문
강력한 통일 제국으로 발전한 당의 문화는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01 유목 세계를 아우른 돌궐 제국

중국이 남북조로 분열됐을 때, 중국 서북쪽 초원 지대에는 돌궐이 여러 유목민을 아우르며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초원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 돌궐은 북조의 여러 나라에 조공을 요구할 정도로 세력이 강했고, 넓은 영토를 동서로 나눠 다스렸다. 그러나 수가 내분을 부추겨 제국은 동서로 분열됐다.

02 중국을 다시 통일한 수

수를 건국한 양견(문제)은 돌궐에 내분이 일어난 틈을 타 남조를 점령해 중국을 다시 통일했다(589). 문제는 귀족의 관직 독점을 막고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유교 경전에 대한 시험으로 관리를 뽑는 **과거제**를 시행했다.

뒤를 이은 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해 강남의 풍부한 물자를 화북으로 운송했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 공사와 잦은 대외 원정으로 백성의 원성을 샀다. 결국 고구려 원정 실패를 계기로 전국에 반란이 일어나 건국한 지 38년 만에 멸망했다(618).



돌궐과 수·당의 영역 당은 한때 중앙아시아 일대를 장악했으나 돌궐의 반격, 토번의 공격으로 곧 지배 영역이 축소됐고, 탈라스 전투에서 아바스 왕조(82쪽 참고)에게 패하면서 서역 정복을 멈춰야 했다. 한편 돌궐은 더 서쪽으로 이동해 튀르크로 이어졌다.

대운하 남북조 시대 이후 강남의 경제력이 커지면서 강남과 화북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대운하는 강남과 화북을 이어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다고 평가받는다.



오늘날 대운하 모습(중국 장쑤)



03 서역까지 세력을 넓힌 당

당을 세운 이연(고조)은 동돌궐의 도움을 받아 수를 무너뜨렸다(618). 뒤를 이은 태종은 오히려 동돌궐을 정복하고 토번(티베트)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어 서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태종 이후로도 정복 활동은 계속되어 서쪽의 서돌궐과 동쪽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대제국으로 성장한 당은 점령한 지역의 세력가들에게 관직을 주는 방식으로 넓은 정복지를 간접 지배했다. 또한 당은 이전 왕조들의 제도를 잘 이어받아 **율령 체제**를 완성했다. 당의 통치 제도는 이후 중국의 여러 왕조와 이웃 나라들의 모범이 됐다(68쪽 참고).

그러나 8세기 중엽 ❶**안·사의 난** 이후 ❷절도사 세력이 강해져 황제권이 약해졌다. 이 틈을 타 권력 다툼이 이어졌고, ❸황소의 난이라는 대규모 농민 봉기까지 일어났다. 쇠퇴해진 당은 결국 절도사 세력에게 멸망했다(907).

❶ **안·사의 난** 절도사였던 안록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일으킨 반란으로, 9년이나 지속됐다(755~763).

❷ **절도사** 병사를 이끌고 국경을 지키던 군사령관이었다. 그러나 안·사의 난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세력이 커져 지방을 장악하고 중앙 정부에 맞서기도 했다.

❸ **황소의 난** 당 말기에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일어났다. 특히 황소의 난(875~884) 때는 장안성이 함락되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모범이 된 당의 통치 체제

❶ 율(律)

'율'은 범죄에 대한 형벌 규정이다. 이를 통해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 질서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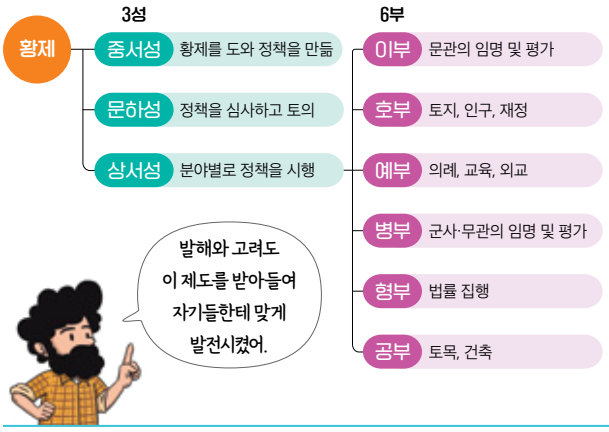
탐구 ① 오른쪽의 처벌 내용으로 알 수 있는 당 법률의 특징을 이야기해 보자.

- 남을 손으로 때리면 회초리 40대, 흉기로 때리면 매 60대를 맞는다.
-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 죄가 되지 않지만) 자식이 부모를 욕하면 교수형, 때리면 참수형으로 다스린다. -『당률』

❷ 령(令)

'령'은 여러 제도를 정한 규정이다. 중앙에는 3성 6부로 행정 조직을 갖췄고, 지방에는 주현을 두어 관리를 파견했다. 그리고 농민에게 토지를 나눠 주는 대가로 세금을 거두고 병사로 복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전히 시행되지는 못했다.

당의 3성 6부제





호적 조사 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

↓

균전제 성인 남자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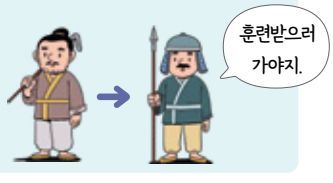
↓

토지를 받은 농민들은

세금 납부 곡물과 노동력, 또는 옷감 등을 세금으로 냄.



부병제 농사일이 바쁘지 않은 시기에 군사 훈련을 받음.



당의 토지, 세금, 군사 제도

탐구 ② 당이 농민에게 토지를 지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탐구 ③ 6부가 오늘날 어떤 정치 기구와 비슷한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대한민국 중앙 행정 기관

04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당

당은 외국인의 왕래와 외래문화 수용에 개방적이었다. 당의 지배 영역이 서역까지 확대되면서 교류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이에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했다. 또한 한대부터 전파된 한자, 유교에 더해 당대에 불교와 율령이 주변 나라로 널리 전해지면서 **동아시아 문화**의 공통성이 커졌다(68쪽 참고). 다양한 종교가 유입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한시, 회화, 서예, 공예 등 화려한 귀족 문화가 꽃피었다.

유교

수에 이어 당도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유교가 더욱 발달했다. 과거 시험의 기본 교재로 활용된 ❹『오경정의』가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

불교

현장 등 여러 승려가 인도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왔다. 이 경전들이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불교 이해의 수준이 높아졌고, 한반도와 일본에도 전해졌다.

다른 종교들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했으며, 서역으로부터 조로아스터교와 ❺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종교가 전해졌다.

❹ **『오경정의』** 유교의 기본서인 오경(서경, 시경, 역경, 춘추, 예기)의 해설서이다.

❺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의 교리가 정리되면서 이단으로 몰린 네스토리우스파는 동쪽으로 이동해 중국까지 이르렀다. 한자로는 '경교'라고 한다.

● 화려한 귀족 문화의 발달

한시 당대에는 글자 수를 맞춰 운율을 살린 한시를 잘 짓는 것이 귀족의 교양이었다.



問余何事棲碧山	묻노니, 왜 푸른 산에 사는가
笑而不答心自閑	웃으며 답하지 않지만, 마음은 저절로 한가롭네.
桃花流水杳然去	복숭아꽃 물 따라 아득히 흘러가니,
別有天地非人間	이곳이 인간 세계가 아닌 별천지라네.

- 이백, 「산중문답」

이백의 시 당의 대표 시인 이백은 속세를 떠난 자연 속의 삶을 주로 노래했다.

회화 서예와 함께 그림도 귀족의 교양으로 여겨져, 전문 화가의 그림과 별개로 문인화가 발전했다.



「장강적설도」 시인이자 문인화의 시조로 알려진 왕유가 그린 산수화이다.

서예 당은 과거 시험에서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도 중요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서예가 발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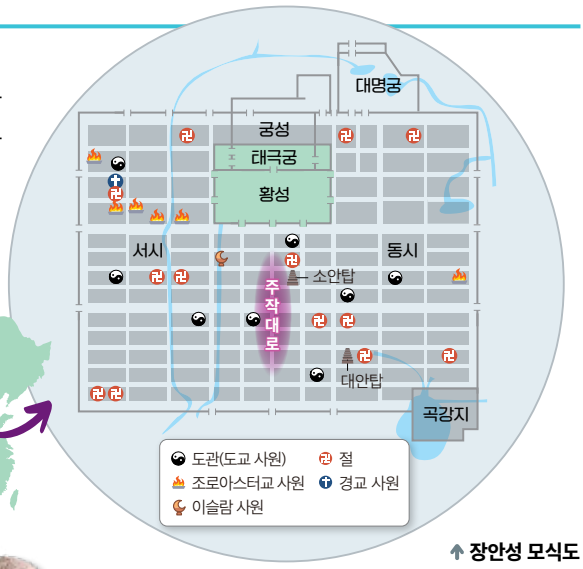


구양순체 명필 구양순의 글씨체는 신라와 고려에서도 유행했다.

동서가 만난 국제도시 장안

당의 수도 장안은 인구 백만이 넘는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장안에는 다른 나라의 사신뿐 아니라 수많은 상인, 학생, 승려가 방문했고, 외국에서 들어온 다양한 종교의 사원이 곳곳에 지어졌다. 동쪽과 서쪽의 시장에는 서역과 주변국에서 들어온 물건들이 가득했다. 도성 안 북쪽에 궁궐을 짓고 궁궐 남문에서 도성 남문까지 큰길을 낸 후 이를 중심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도시를 조성하는 방식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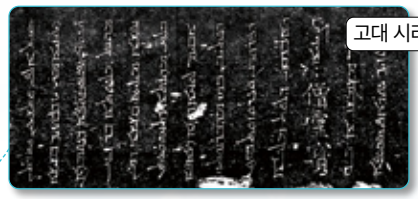
↑ 장안성 모식도



↑ **예빈도**(중국 시안) 당의 황족 무덤에 그려진 벽화로, 당의 관리가 외국 사신을 맞이하는 장면이다.



대진국의 사제 아라본이 멀리서 장안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다. 그 교리를 살펴보니 …… 만물을 구제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대진 경교 유행 중국비**(중국 시안비림박물관) 로마(대진)로부터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경교)가 당(중국)에 전해진(유행) 과정이 한자와 고대 시리아어로 적혀있다.



← **대안탑**(중국 시안) 승려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모신 탑이다.



→ **당삼채**(중국국가박물관) 세 가지 색을 섞어 다양한 색을 표현한 도자기이다. 낙타를 탄 서역 상인의 모습에서 당의 활발한 대외 교류를 짐작할 수 있다.

함께 확인해요

❶ 당 태종은 □□ 제국을 물리치고 서역으로 세력을 넓혔다.

❷ 당은 이전의 제도들을 잘 이어받아 □□ 체제를 완성했다.

❸ 생각 UP 외래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당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생각 쑥쑥 탐구

동아시아 문화의 형성

동아시아 각국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했습니다. 특히 제국으로 성장한 중국에 때로는 맞서고 때로는 협조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문화적 공통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01 동아시아의 문화적 공통점



한자 독자적인 문자가 없었던 동아시아 각국은 일찍부터 한자를 받아들여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한자를 바탕으로 각국의 문자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교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이념이자, 백성들을 복종시키는 규범 역할을 했다. 동아시아 각국은 유교 지식을 갖춘 관리를 길러내기 위해 교육 기관을 설치했다.



불교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로 번역된 불경을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불교는 동아시아 각국의 왕실과 귀족의 보호 아래 성장했고, 많은 불교 사원과 불상이 제작됐다.



율령 동아시아 각국은 중국의 율령을 참고해 관리의 등급과 그에 따른 복장을 정하는 등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또한 독자적인 율령을 발표하기도 했다(역사② 23쪽 참고).

02 중국 문화의 수용과 발전

만주·한반도

삼국 시대 3~5세기에 걸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춰 나갔다.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수용했고, 중국의 제도를 참고해 율령을 발표했다.

통일 신라와 발해 7세기 이후 신라와 발해는 모두 유학생과 승려, 외교 사절을 당에 파견해 문화를 받아들였다. 당의 관리가 된 유학생, 당을 거쳐 인도까지 간 승려도 있었다.



일본

야마토 정권 수립 4세기 전후에 주변 소국들을 복속하며 성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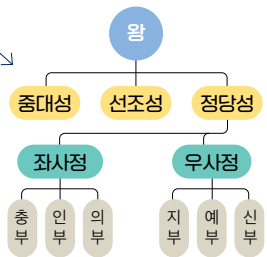
아스카 문화와 다이카 개신 야마토 정권은 중국과 한반도로부터 유교와 불교를 받아들여 문화를 발전시켰다. 7세기에는 중국에 대규모 사신을 보내 중국 문화를 배워왔고, 그 결과 왕권을 강화하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했다.

일본과 천황 왕권이 강화되자 7세기 말부터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 하고 국왕을 '천황'이라고 높여 불렀다. 8세기 초에는 율령을 발표하고, 당의 장안성을 모방해 수도 헤이조쿄를 새로 건설했다.

헤이안 시대 8세기 말 수도를 헤이안(지금의 교토)으로 옮긴 후 견당사 파견을 중단하고 독자적인 일본 문화를 발전시켰다. 한자를 변형해 가나 문자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문학 작품도 많이 나왔다.



(역사② 55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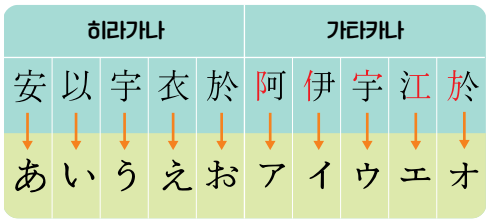
발해의 3성 6부제 당의 3성 6부제를 발해의 상황에 맞게 변용해 운영했다.

추천 검색어 일본의 2관 8성제



일본의 헤이조쿄 모식도

추천 검색어 발해의 상경성



가나 문자



도다이지 대불을 청소하는 모습
(일본 도다이지) 동아시아 각국은 국력을 과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거대한 불상을 제작했다.

함께 탐구해요

❶ 동아시아 각국이 중국 문화를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❷ 논술 UP 문화의 전파와 수용을 대하는 옳은 태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다음 주장을 비판해 보자.

> 만주·한반도의 고대 문화는 모두 중국이 전해 준 거야.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 모든 것에서 중국이 원조이고 삼국은 이를 모방했을 뿐이지.



이번 중단원에서는 인도, 서아시아, 유럽의 정치적 변동과 각 지역에서 발달한 종교·문화의 관계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11

관련 주제
주제6(46쪽)
주제14(82쪽)

인도에 꽃핀 힌두 문화

핵심 질문
인도에서 불교를 대신해 힌두교가 전통 종교로 자리 잡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01 굽타 왕조의 발전과 힌두교

쿠샨 왕조가 쇠퇴한 후 인도에는 여러 나라가 경쟁을 벌였다. 이 중 갠지스강 유역에서 등장한 굽타 왕조가 인도 북부에서 세력을 키웠다. 특히 4세기 말에 즉위한 찬드라굽타 2세는 북인도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 경제적으로는 동쪽의 중국, 서쪽의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교역하며 번성했다.



이 시기에 브라만교를 바탕으로 민간 신앙과 불교가 더해진 **힌두교**가 등장했다.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힌두교의 신에 비유하며 힌두교를 지원했다. 힌두교는 브라만교 전통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카스트에 따른 신분 차별이 다시 강화됐다. 카스트에 따라 지켜야 할 규범과 의무를 정해놓은 『**마누 법전**』이 일상생활의 기준이 되어 이후 인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쳤다.

힌두교는 어떤 종교일까?

❶ 힌두교가 유행한 까닭

불교는 세상과 인연을 끊고 엄격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어. 그래서 일반인이 따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지.

반면 브라만교는 복잡한 제사 의식과 비싼 제물을 간소화했어. 그리고 석가모니를 비롯한 다른 종교의 신들까지 받아들이며 힌두교로 거듭났지.

그래서 힌두교는 인도인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었고, 인도인 대다수가 믿는 종교가 됐어. 오늘날 3억 3천만의 신이 있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이 숭배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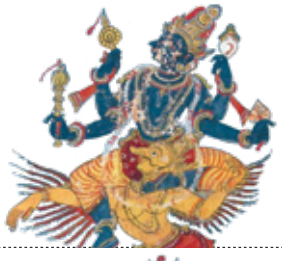
탐구 ① 힌두교의 신들을 더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인드라, 아수라, 가네샤, 락슈미, 시타 등

❷ 힌두교를 대표하는 신들



1. **브라흐마**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으로, 힌두교에서 우주의 근본적 원리를 상징한다. 동서남북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팔을 가지고 있으며,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백조를 타고 다닌다.



2. **비슈누** 세상을 유지·보존하는 신으로, 네 개의 팔에 각각 무기를 들고 있다. 여러 화신(아바타)으로 등장해 인간을 구원한다. 사람 몸에 독수리 날개를 한 가루다를 타고 다닌다. 인도의 왕들은 자신을 비슈누의 화신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3. **시바** 파괴의 신이자 재생의 신이다. 갠지스강을 상징하는 흘러내리는 머리, 세상을 파괴한다는 두 눈 사이의 세 번째 눈, 삼지창을 든 모습으로 표현된다. 흰 소를 타고 다니는데, 힌두교에서 소를 숭배하는 것은 여기에서 유래했다.

02 인도 고전 문화와 자연 과학의 발전

굽타 왕조에 이르러 힌두교를 바탕으로 인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 주는 고전 문화가 확립됐다. 문학에서는 힌두교 세계관을 잘 보여 주는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와 같은 서사시가 인도 고유 언어인 산스크리트어(범어)로 정리됐다. 미술에서는 몸매를 그대로 드러내는 **굽타 양식**이 유행했다. 불교 사원인 아잔타 석굴과 불교·힌두교 사원이 함께 있는 엘로라 석굴의 벽화와 조각이 대표적이다.

우주의 탄생과 만물의 근원에 대한 관심은 자연 과학의 발달로 이어졌다. 지구가 둥글며 스스로 돈다고 생각했고, 일식(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과 월식(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현상)의 원인도 밝혀냈다. 불교의 ❶'공(空)' 사상은 숫자 '0'의 사용과 10진법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런 자연 과학 지식은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에 전해졌다.

❶ **공 사상** 세상 모든 것은 비어있지만, 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불교 사상이다. '비어 있다'라는 개념이 숫자 0으로 표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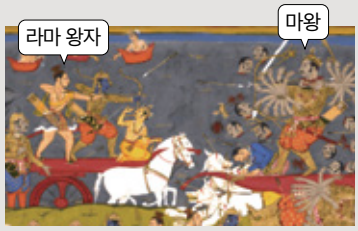
인도	०	१	२	३	४	५	६	७	८	९
아라비아	٠	١	٢	٣	٤	٥	٦	٧	٨	٩
현대	0	1	2	3	4	5	6	7	8	9

숫자의 변화 인도에서 사용된 0과 숫자는 아라비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해져 현재와 같은 모양으로 정착됐다. 아주 작은 수와 아주 큰 수에 대한 탐구도 이어져 무한대(∞) 개념도 나왔다.

탐구 ② 불교에서 유래한 아주 작은 수와 아주 큰 수를 나타내는 말을 찾아보자.

추천 검색어 찰나, 억겁, 불가사의, 무량대수

인도의 고전 문학



『라마야나』 비슈누의 화신인 라마 왕자가 마왕과 싸워 아내와 왕국을 되찾는 이야기이다. 타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도 널리 알려져 있다.



『마하바라타』 바라타 왕국의 후계자인 다섯 형제가 사촌들로부터 왕위를 되찾기 위해 벌인 전쟁 이야기다. '마하'는 '위대한'이라는 뜻으로, 오늘날 인도인은 자신들을 바라타족의 후예라고 여긴다.



엘로라 석굴(인도 아우랑가바드) 엘로라 석굴은 굽타 왕조가 쇠퇴한 7~10세기에 만들어진 불교·힌두교 사원으로, 30개 이상의 석굴이 있다. 석굴에 사원을 만드는 문화는 중국과 한반도에도 전해졌다.

연꽃을 손에 든 보살 벽화(인도 아우랑가바드) 기원전부터 수백 년간 조성된 아잔타 석굴 사원에 있는 벽화이다. 인도인을 닮은 둥근 얼굴, 화려한 장신구, 몸매가 드러나는 얇은 옷 등 굽타 양식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함께 확인해요

❶ 굽타 왕조의 왕들은 자신을 □□□의 신에 비유했다.

❷ 검색 UP 오늘날 인도인의 생활 속에 힌두교가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바라나시, 요가, 소 숭배

생각 쑥쑥 탐구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는 인도차이나반도와 그 남쪽 섬들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일찍부터 벼농사를 지었고, 어업과 해상 교역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왕국이 등장했고, 필요에 따라 중국과 인도의 문화를 폭넓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 유적을 통해 이들이 수용한 다양한 문화를 알아볼까요?

타이

11세기부터 미얀마의 영향으로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였다. 오늘날에도 국민 대다수가 불교 신자이다.

→ **왓 마하탓**(타이 아유타야) 13세기에 타이를 최초로 통일한 수코타이 왕조의 왕실 사원이다.



미얀마

11세기 파간 왕조 때 상좌부 불교를 받아들여 수많은 사원과 탑을 세우고 경전을 모아 동남아시아의 불교 중심지가 됐다. 오늘날에도 국민 대다수가 불교를 믿는다.

↓ **파간**(미얀마 파간) 2,000개가 넘는 탑과 사원이 보존되어 있어 '불탑의 도시'라고 불린다.





↑ 오늘날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바다를 통해 인도와 교역하면서 불교와 힌두교를 수용했다. 자와섬 중앙에는 대승 불교를 받아들인 사일렌드라 왕조가 8세기부터 번성했지만, 섬 동쪽에는 힌두교를 받아들인 다른 세력이 있었다.

→ **보로부두르 사원**(인도네시아 마겔랑) 8세기 무렵 자와섬 중앙에 세워진 거대한 불교 사원이자 탑이다. 꼭대기의 원뿔형 탑 주변에 72개의 탑이 있고, 불상이 탑 안에 있다.





베트남

베트남 북부 지역은 한 무제에게 정복당한 이후 약 1000년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그래서 한자, 유교, 율령, 대승 불교가 자연스럽게 베트남에 전해졌다. 오늘날에도 불교를 믿는 인구가 많다. 이와 달리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는 힌두교를 받아들인 참파 왕조가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발전했다.



➔ **문묘**(베트남 하노이) 유교의 성인인 공자를 모시는 사당이자, 유학자를 키운 교육 기관이다.

문명의 교차로 동남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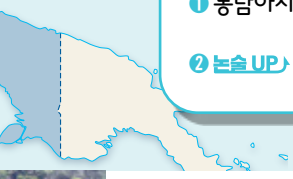
인도차이나반도 남쪽으로 이어지는 섬들은 동서로 인도양과 태평양, 남북으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이 바닷길을 따라 배를 타고 계절풍을 이용해 동서를 오갈 수 있었다. 동쪽에서는 중국 상인들이, 서쪽에서는 인도 상인들이 향료 등 특산물을 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동서를 오가며 교역을 주도했다. 이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 만나고 섞이면서 동남아시아만의 독특한 문화가 형성됐다.



↑ **미선 유적**(베트남 주이쑤옌) 베트남 중부에 있는 참파 왕국의 힌두교 사원으로, 시바를 주로 모신다.



↑ **화옌사**(베트남 옹 비) 베트남 북부의 대표 사찰로, 석가모니의 사리를 모셨다고 전해진다.



함께 탐구해요

❶ 동남아시아에 어떤 문화들이 공존하고 있는지 찾아보자.

❷ 논술 UP♪ 동남아시아에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배경은 무엇일까?

캄보디아

9세기 초부터 앙코르 왕조가 등장해 힌두교를 받아들이고 제국을 이루며 번성했다. 후에 점차 불교를 받아들여 오늘날에는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다.



↓ **앙코르 와트**(캄보디아 시엠립) 비슈누에게 바치는 거대한 힌두교 사원이었지만, 상좌부 불교가 유행하면서 불교 사원으로 이용됐다.





↑ **프람바난 사원**(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9~10세기에 자와섬 동쪽에 세워진 힌두교 사원이다. 가장 큰 사원은 시바에게 바친 것이다.

주제

12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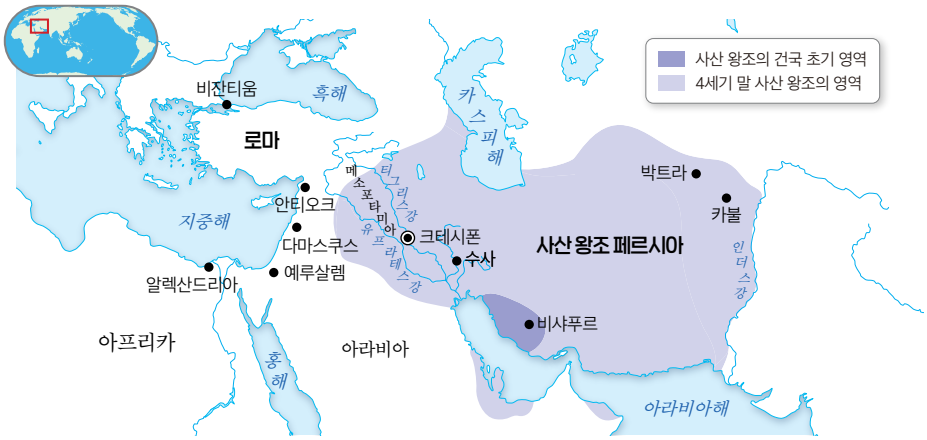
관련 주제
주제3(34쪽)
주제5(40쪽)
주제14(82쪽)

핵심 질문
오늘날 전 세계에 약 18억 명이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슬람교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했을까?

01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발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파르티아(43쪽 참고)를 멸망시키고 서아시아를 정복했다. 사산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34쪽 참고)를 계승했다. 왕을 '샤한샤'라 칭하고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으며, 아케메네스 왕조의 전성기 영토를 회복하려 했다.

사산 왕조는 동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며 경제적으로 번성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발전시켰다. 중국과 교류하며 조로아스터교와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트교(경교)를 전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80쪽 참고)과의 계속되는 전쟁으로 점점 쇠약해져 결국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했다(651).



사산 왕조 페르시아의 영역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3세기에 동쪽으로 쿠샨 왕조를 압박하고, 서쪽으로는 로마와 겨뤘다. 4세기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더스강에 이르는 대제국을 이루었다.



봉수형 유리병(국립경주박물관) 경주에서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보이는 유리병이 발견됐다.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한 사산 왕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는 샤푸르 1세 때 로마와의 전쟁에서 이겨 로마 황제를 포로로 잡았다. 그 순간을 묘사한 부조는 다리우스 1세를 모신 영묘(영혼을 모신 사당) 아래편에 새겨져 있다. 이는 사산 왕조가 아케메네스 왕조를 계승하려 했음을 잘 보여 준다.



샤푸르 1세의 부조 로마의 발레리아누스 황제가 샤푸르 1세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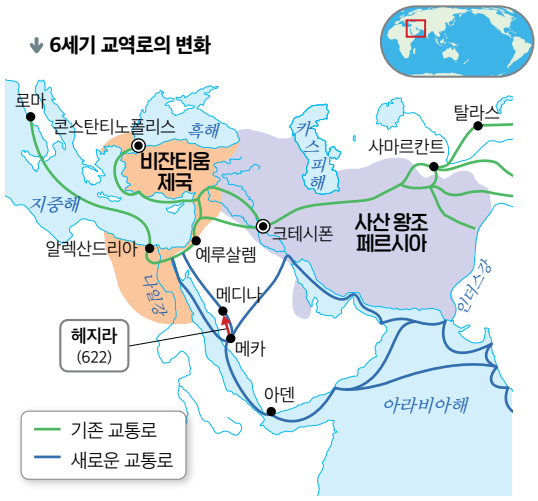
페르시아왕들의 영혼을 모신 낙쉐 로스탐(이란 마르브다슈트) 페르세폴리스 북서쪽에 다리우스 1세 등 4명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왕들의 영묘가 조성되어 있다.

02 예언자 무함마드와 이슬람교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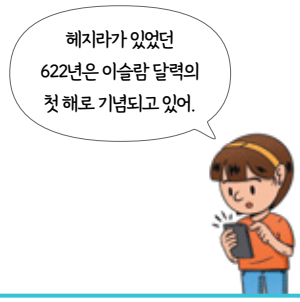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간의 전쟁은 동서 교역을 힘들게 했다. 그러자 상인들은 아라비아해로 우회하는 새로운 교역로를 개척했다. 그 결과 메카, 메디나 같은 도시들이 번성했다. 하지만 도시의 일부 유력자(세력이나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독점하면서 빈부 격차가 커졌고, 부족 간 갈등과 전쟁도 빈번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메카의 상인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유일신 알라를 믿는 자는 모두 평등하다'라는 그의 가르침은 하층민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메카의 유력자들은 그를 박해했고, 무함마드와 추종자들은 메디나로 피신했다(622, 헤지라). 무함마드는 신자들을 모아 이슬람 공동체를 만들어 메디나를 장악했고, 이후 메카까지 정복해 아라비아반도 대부분을 차지했다.

6세기 교역로의 변화



탐구 ① 메카는 오늘날 어느 나라에 속할까?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일까?

이슬람교도가 지켜야 할 5가지 의무



1. 신앙 고백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예언자임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



2. 예배
하루 다섯 번 정해진 시간에 메카 쪽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



3. 헌금
자기 수입 중 일부를 가난한 자를 위해 내어 놓아야 한다.



4. 금식
이슬람력으로 아홉째 달(라마단)에는 한 달 동안 금식해야 한다.



5. 성지 순례
평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해야 한다.

'이슬람'은 아랍어로 '복종'이란 뜻이다. 상인으로 아라비아 여러 곳을 다녔던 무함마드는 조로아스터교나 크리스트교의 교리를 참고해 이슬람교를 창시했다. 그래서 이슬람교 경전 『쿠란』에는 아브라함, 모세, 예수 이야기도 들어있다. 다만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알라가 보낸 여러 예언자 중 하나로 여겨진다.

Q. 한 달을 어떻게 굶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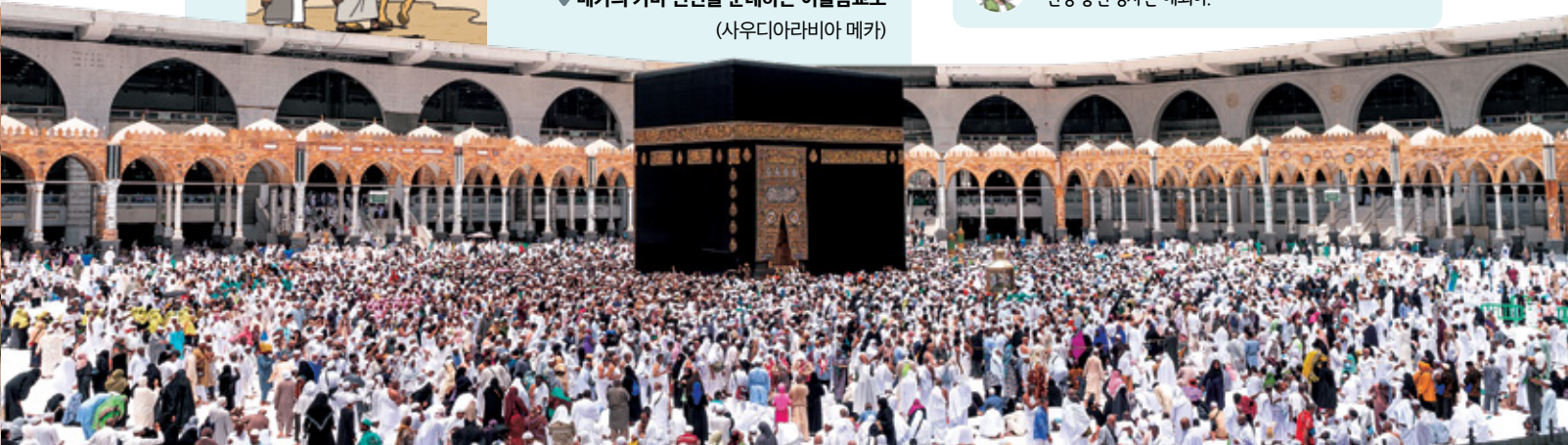
해가 떠 있는 낮 동안만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을 수 있어. 낮에는 물도 못 마시니 쉬운 일은 아니지.

Q.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



환자나 노인,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 어린이나 여행자, 전쟁 중인 병사는 예외야.

↓ 메카의 카바 신전을 순례하는 이슬람교도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03 정통 칼리프 시대와 이슬람 세계의 확대

❶ **칼리프** 무함마드의 후계자로 이슬람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를 뜻한다. 무함마드와 마찬가지로 종교적 권위뿐 아니라 정치·군사적 권한까지 가졌다.

❷ **『쿠란』** 이슬람교의 경전으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 규율도 규정했다 (84쪽 참고).

무함마드가 죽은 후 이슬람 공동체는 한동안 후계자인 ❶**칼리프**를 선출했다(**정통 칼리프 시대**). 칼리프들은 무함마드가 받은 신의 계시를 모아 ❷**『쿠란』**으로 정리했고, 알라의 뜻을 널리 전하기 위해 정복 활동도 계속했다. 그 결과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반도를 넘어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정복했다. 정복지에서 강제 개종은 없었지만,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늘어났다.

그러나 칼리프 선출을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면서 칼리프가 잇달아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세습하면서 정통 칼리프 시대는 막을 내렸다(661).



전투 중인 이슬람 전사들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의 뜻을 실현할 이슬람 공동체의 건설을 중요히 여긴다. 그래서 알라의 뜻을 전하는 정복 활동을 신성한 일로 평가했다.



이슬람 세계의 확대

수니파와 시아파의 분열

Q. 4대 칼리프 알리는 누구?

3대 칼리프가 암살당한 혼란 속에서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가 4대 칼리프로 선출됐어. 무함마드와 피를 나눈 친척이자, 신앙심이 깊었던 알리는 정복지의 총독들이 신앙 대신 땅과 재물만 탐한다며 이들을 교체하려 했지.

Q. 총독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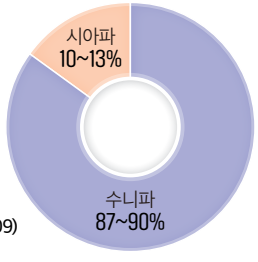
맞아. 여러 총독이 반발했고 시리아 총독은 반란까지 일으켰어. 이를 계기로 알리 세력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나 알리가 암살됐지. 이 틈을 타 시리아 총독이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고 후손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 우마이야 왕조가 생겼어.

Q. 그럼 수니파와 시아파는 뭐야?

억울하게 죽은 무함마드의 혈통 알리만이 진정한 칼리프라고 믿는 소수파를 '시아파', 4명의 칼리프와 우마이야 왕조 모두를 인정하는 다수파를 '수니파'라고 해. 수니파와 시아파는 대체로 평화롭게 공존해 왔지만,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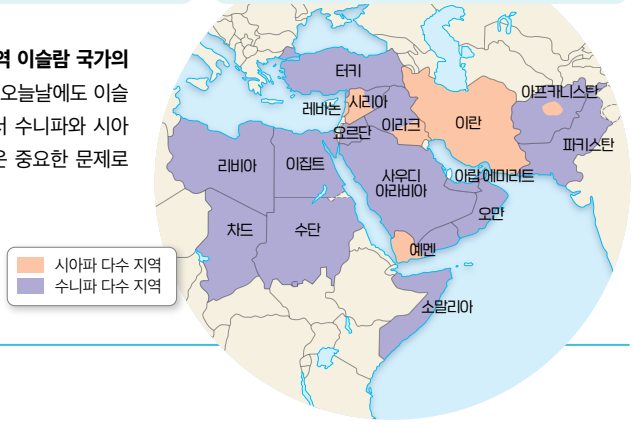
수니파와 시아파 전체 비율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각각 수니파와 시아파를 대표한다.



- 퓨 리서치 센터(2009)

중동 지역 이슬람 국가의 종파 분포 오늘날에도 이슬람 세계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대립은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다.



04 제국으로 발전한 우마이야 왕조

우마이야 왕조는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고, 동쪽으로는 인더스강 유역과 중앙아시아,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와 바다 건너 이베리아반도(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이 위치한 유럽 서남쪽 끝에 있는 반도)까지 정복했다. 이에 우마이야 왕조는 유럽·아프리카·아시아에 걸친 제국으로 발전했고, 제국 안에는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살았다. 곳곳에 화려한 **모스크**(예배가 이뤄지는 이슬람교 사원)(84쪽 참고)가 세워졌고, 문화 교류뿐 아니라 동서 중계 무역도 활발했다.

하지만 우마이야 왕조는 여전히 아랍인 중심으로 운영되어 아랍인만이 높은 관리나 장군이 될 수 있었다. 비아랍인들은 알라 앞에 모든 이슬람교도가 평등하다는 가르침에 따라 이슬람교로 개종했지만, 차별 대우에 점점 불만을 느꼈다. 이는 결국 우마이야 왕조의 분열과 쇠퇴로 이어졌다.





우마이야 모스크(시리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는 비잔티움 문화와 크리스트교의 영향이 강한 곳이었다. 우마이야 왕조는 이곳을 수도로 정하고, 크리스트교 교회가 있던 곳에 화려한 모스크를 건설했다.

히잡은 존중해야 할 이슬람 전통일까, 극복해야 할 여성 억압일까?

❶ 히잡을 쓰는 이유

『쿠란』에는 여성의 순결을 강조해 머릿수건을 써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여성은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준다.



히잡 머리와 상체를 가리는 이슬람교도의 의복이다. 얼굴과 신체를 가리는 정도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다.

❷ 오늘날 히잡에 대한 논쟁



「히자비」 미국 이슬람교도 힙합 가수의 노래로, 개인이 히잡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히잡 시위(2022) 이란에서 히잡을 잘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여성이 종교 경찰에 의해 사망했다. 이에 많은 이란 여성이 히잡을 거부하는 시위를 벌였다.

탐구 ② 히잡의 착용 여부를 누가 결정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함께 말해 보자.

함께 확인해요

❶ 칼리프의 정통성을 놓고 다수파인 □□□과/와 소수파인 □□□(으)로 나뉘었다.

❷ **생각 UP** 이슬람교에 많은 사람이 호응한 까닭은 무엇일까?

주제

13 크리스트교 세계의 발전

관련 주제
→ 주제5(40쪽)
→ 주제15(86쪽)

핵심 질문
로마가 동서로 분리된 이후, 크리스트교는 유럽에서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

01 서로마 제국의 붕괴와 프랑크 왕국의 성립

4세기 초 동쪽에서 ❶훈족이 침입해 오자 국경 밖의 ❷**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대거 이동해 왔다. 로마 제국은 이들을 통제하지 못했고, 게르만족은 곳곳에 자신들의 왕국을 세웠다. 결국 게르만족 용병(돈을 받고 고용된 병사)이 황제를 몰아내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다(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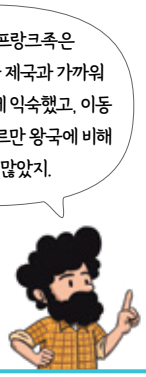
서유럽에 자리 잡은 게르만 왕국들은 서로 경쟁하며 세력을 다퉜다. 이 중 일부는 비잔티움 제국(동로마)에게 다시 정복당했다. 하지만 프랑크 왕국은 일찍부터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이며 발전했고, 다른 게르만 왕국들을 제압하며 서유럽의 중심 국가로 점점 성장했다.



↑ **게르만족의 이동**

❶ **훈족** 중앙아시아에서 흑해 동부를 거쳐 유럽으로 침입해 게르만족의 이동을 자극한 유목민이다.

❷ **게르만족** 원래 로마 제국의 북쪽에서 수렵과 목축, 농업을 하며 살던 여러 종족을 통틀어 말한다.



크리스트교는 서로마 멸망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❶ 일상에 스며드는 크리스트교

교회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 도시와 마을을 보호하고, 다양한 토속 신앙을 믿던 게르만족에게 크리스트교를 전파했다. 교회와 수도원은 각 지역의 문화 중심지이자 학교, 병원 역할까지 했다.



↑ **기도하고 노동하는 수도사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숲을 개간하는 일꾼이자 마을을 지키는 전사로도 활약했다.

❷ 교황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회 체제

크리스트교로 개종하는 게르만족이 늘자, 게르만 왕국들도 교회의 협조가 필요해졌다. 이에 권력이 커진 로마 주교는 교황이 됐고, 그를 수장으로 한 중앙 집권적인 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 **가톨릭의 교계 제도**

❸ **교구** 교회를 지역별로 구분하는 단위이다.

02 서유럽 문화의 토대를 마련한 카롤루스 대제

8세기 들어 우마이야 왕조가 바다를 건너 이베리아반도를 차지했다(77쪽 참고).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자, 프랑크 왕국의 재상(왕을 돕는 관리 중 최고 책임자) 카롤루스 마르텔이 이를 물리치고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켜냈다. 이후 카롤루스 마르텔의 아들은 프랑크 왕국의 왕이 되려고 했다. 교황이 그의 즉위를 인정해 주자, 그는 그 대가로 게르만족에 대한 선교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정복하고 이를 교황에게 바쳤다(교황령).

뒤를 이은 **카롤루스 대제**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서유럽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정복지에 교회를 세워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 더 많은 땅을 교황에게 바쳤다. 그 보답으로 교황은 그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다(800).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로마 교회의 갈등이 더욱 심해졌다(81쪽 참고).



↑ **프랑크 왕국의 발전** 이슬람 세력을 막은 이후 프랑크 왕국은 카롤루스 대제 때 많은 영토를 차지했다.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후 프랑크 왕국은 그의 후손들에 의해 셋으로 나뉘어 오늘날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의 기원이 됐다.



← **카롤루스 대제상을 받는 유럽 중앙 은행 총재**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하나로 다스렸던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독일 아헨에서는 매년 유럽 통합과 발전에 공헌한 인물에게 카롤루스 대제상을 수여하고 있다. 2002년에는 유럽의 경제적 통합을 이끈 '유로화'가 수상자로 선정되어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대신 상을 받았다.

↓ **카롤루스 대제 동상**(독일 아헨)



↓ **아헨 대성당**(독일 아헨) 카롤루스 대제는 아헨을 수도로 삼아 궁전과 대성당을 짓고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 결과 아헨은 크리스트교를 중심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가 융합된 중세 서유럽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와 수행원들** 왼쪽에는 관료와 군인, 오른쪽에는 성직자가 서 있다.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는 종교와 정치에서 큰 권한을 행사했다.

03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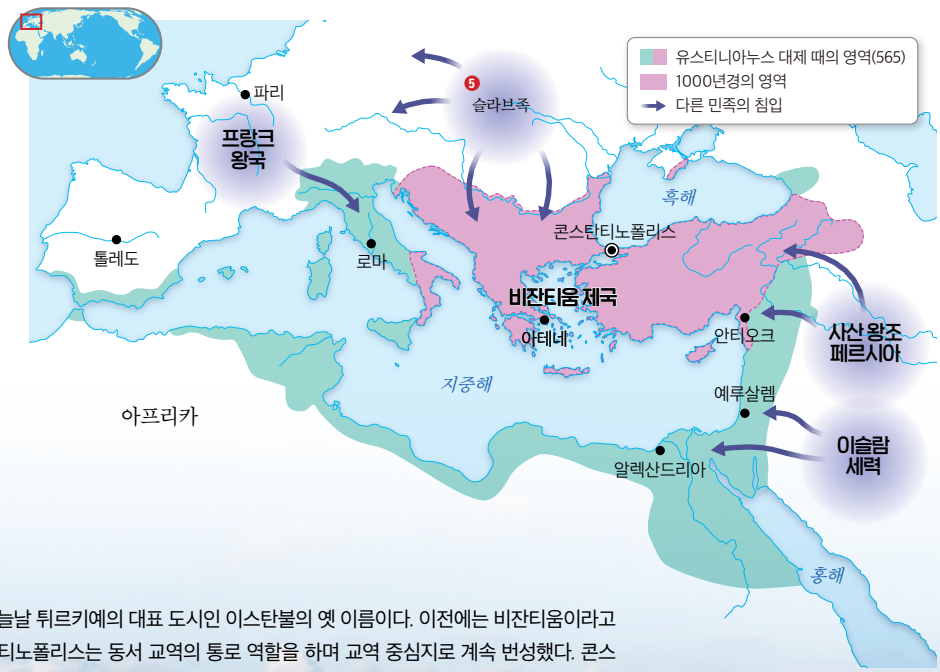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은 훈족과 게르만족의 침입을 받았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도 다투는 등 계속 외침에 시달렸다. 그러나 이를 잘 막아내며 1000년 동안 나라를 유지했다.

특히 **유스티니아누스 대제**는 6세기에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그는 게르만 왕국들을 물리치고 지중해 연안을 장악해 옛 로마 제국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또 기존의 로마법을 정리해 ❹**『로마법 대전』**을 완성하고,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을 건설했다(88쪽 참고).

그러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이후 제국은 계속된 외침으로 위기에 빠졌다. 이에 맞서 비잔티움 제국은 군인에게 땅을 주고 사령관에게 지방 행정을 맡겨 그 지역을 지키게 했다. 또 귀족과 수도원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자영농을 보호하는 등 황제 중심의 정치를 이어가려 했다.

❹ **로마법 대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도 부른다. 제국 시민 모두에게 적용할 법을 만들려는 노력의 결과였다. 이후 유럽의 법체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최대 영토를 차지했다. 그러나 곧 게르만 왕국에 이탈리아를 빼앗겨 로마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약해졌다. 이후 북쪽의 슬라브족, 동쪽의 이슬람 세력에게 침입당해 영토가 크게 줄었다.



❺ **슬라브족** 동유럽 지역에 주로 거주했던 종족으로, 오늘날 동유럽과 러시아인이 여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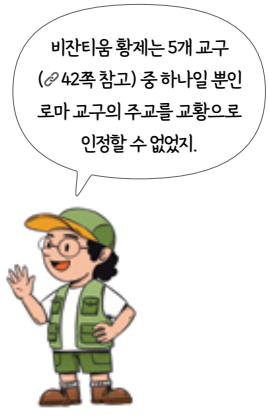
↓ **콘스탄티노폴리스**(튀르키예 이스탄불) 오늘날 튀르키예의 대표 도시인 이스탄불의 옛 이름이다. 이전에는 비잔티움이라고 불렸다.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에 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서 교역의 통로 역할을 하며 교역 중심지로 계속 번성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높이 12m에 달하는 이중, 삼중의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로 여겨졌다.



04 동서 교회의 분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자, 비잔티움 황제는 자신이 유일한 로마 제국 황제이자 크리스트교 세계의 수호자임을 밝혔다. 또한 종교 회의를 열어 교리를 다듬고 교회의 주교를 직접 임명했다. 로마의 교황은 비잔티움 황제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것에 불만을 품었고, 이는 8세기에 **성상 숭배 금지**를 둘러싼 대립으로 격화됐다.

비잔티움 제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로마 교황은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다.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제국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다. 비잔티움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계속된 대립은 동·서로마 교회의 분열로 이어졌다(1054). 이후 교황을 따르는 서유럽 교회는 **로마 가톨릭**, 황제가 주도하는 동유럽 교회는 **그리스 정교**로 불렸다.



성상 숭배를 둘러싼 논쟁에는 종교적인 이유만 있었을까?



탐구 ① 교황은 왜 카롤루스 대제를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했을까?

탐구 ② 나중에 비잔티움 제국도 성상을 허용했고, 오늘날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상을 신성시하고 있다. 동·서로마 교회가 분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함께 확인해요

❶ 프랑크 왕국의 □□□□ 대제는 교황으로부터 서로마 제국 황제로 임명됐다.

❷ 성상 숭배 논쟁 이후 교회는 그리스 정교와 □□ □□□(으)로 분열됐다.

이번 중단원에서는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가 충돌한 배경과 이후 이뤄진 교류를 탐구할 수 있다.

주제 14

이슬람 세계의 확대와 변화

관련 주제
→ 주제10(64쪽)
→ 주제11(70쪽)
→ 주제12(74쪽)
→ 주제22(118쪽)
→ 주제23(120쪽)

핵심 질문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퍼져 나갈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01 아바스 왕조의 등장과 이슬람 세계의 다양화

비아랍인을 차별하던 우마이야 왕조는 시아파와 페르시아인의 지원을 받은 **아바스 왕조**에게 무너졌다(750). 아바스 왕조는 여전히 수니파를 따르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했지만, 페르시아에 가까운 **바그다드**를 수도로 정하고 비아랍인도 관리로 등용하는 등 모든 이슬람교도를 동등하게 대했다. 또 학문을 권장하고 다양한 문헌을 연구·보존하기도 했다. 그 결과 바그다드는 이슬람 세계의 중심이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세계의 시장으로 번성했다.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전처럼 이슬람 세계 전체를 다스리지는 못했다. 이베리아반도에서는 우마이야 왕조의 후손들이,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에는 시아파가 각각 나라를 세웠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에도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여러 이슬람 왕조의 등장은 오히려 지역별로 다양한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고 이슬람교가 더욱 퍼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유럽의 이슬람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한 후 그 후손들은 유럽의 이베리아반도에 자리 잡았다. 이 지역은 로마 문화의 전통 위에 이슬람교가 융합해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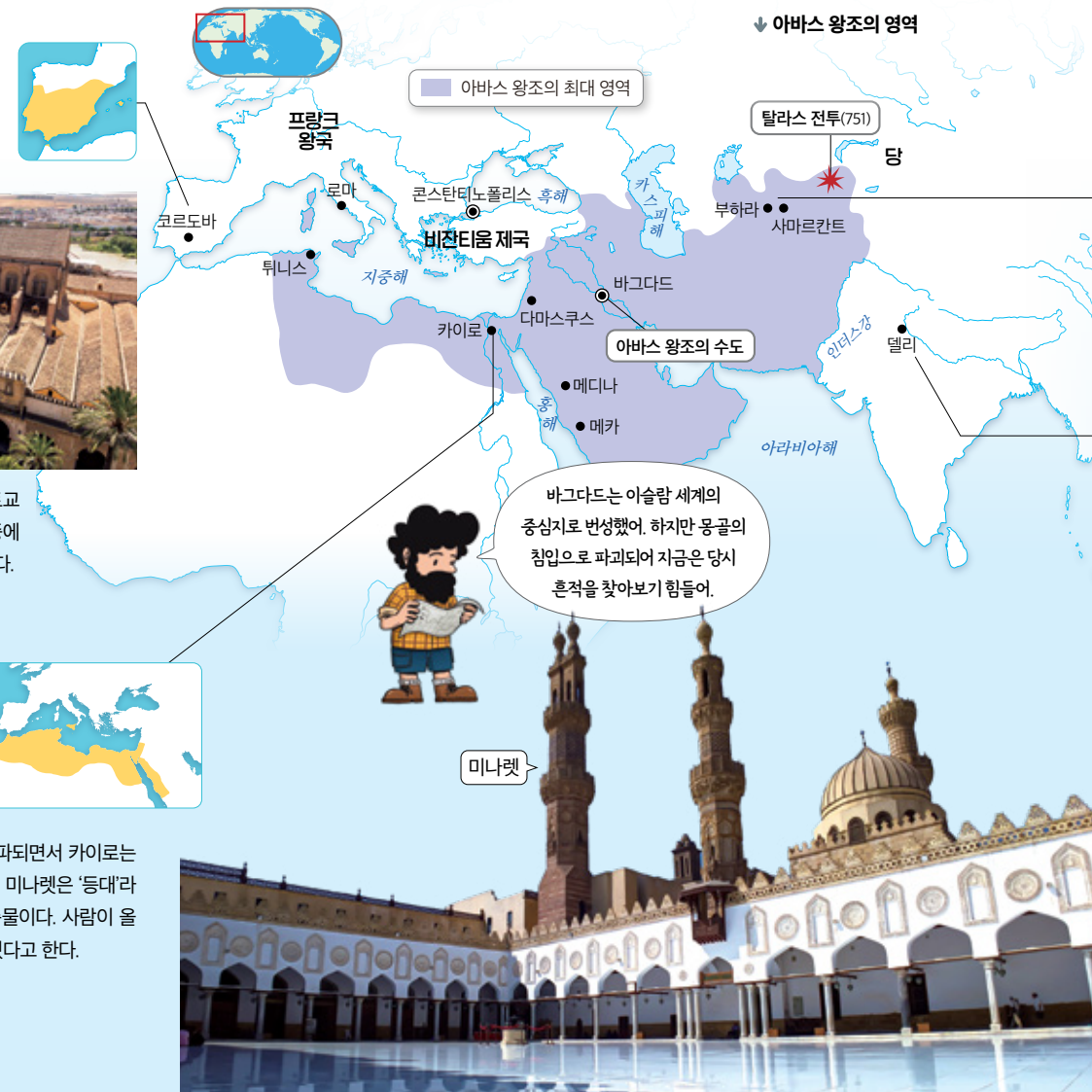


↑ **코르도바의 모스크**(에스파냐) 크리스트교 교회가 있던 자리에 세운 모스크이다. 나중에 이슬람교도를 몰아내고 다시 교회로 개조했다.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왕조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에도 독자적인 이슬람 왕조가 등장했다. 이들은 아바스 왕조와 달리 시아파를 따랐다.

→ **카이로의 모스크**(이집트) 이슬람교가 전파되면서 카이로는 '1000개의 미나렛을 가진 도시'로 발전했다. 미나렛은 '등대'라는 뜻으로, 기도 시간을 알릴 때 활용된 건축물이다. 사람이 올라가 큰 소리로 신자들에게 예배 시간을 외쳤다고 한다.



02 이슬람 세계의 주역이 된 셀주크 튀르크

돌궐 제국이 무너진 후 **튀르크** 계통의 유목민은 서쪽으로 이동했다(65쪽 참고). 이들은 이슬람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일부는 이슬람 왕조의 전사로 활약했다. **셀주크 튀르크**도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이동하며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이슬람 왕조의 용병으로 힘을 키워 이후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했다. 11세기에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해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❶**술탄**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셀주크 튀르크가 이슬람 세계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에 이어 튀르크인도 이슬람 세계의 주역(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다.



↑ **셀주크 튀르크의 영역** 셀주크 튀르크는 세력을 확장하면서 서쪽으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해 소아시아를 차지하고 비잔티움 황제를 포로로 잡기도 했다. 이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다(90쪽 참고).

❶ **술탄** 이슬람 세계의 정치적 지배자를 이르는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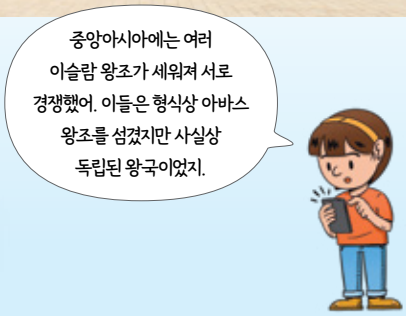
중앙아시아의 이슬람 왕조

동서 교역에 적극적이었던 아랍과 페르시아의 이슬람교도들은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과 계속 접촉했다. 이를 통해 이슬람교가 중앙아시아 유목민에게도 전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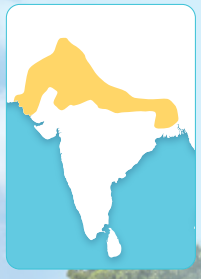
→ **부하라의 영묘**(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에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 건축물로, 왕족들의 영혼을 모신 사당이다.



인도의 이슬람 왕조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에 접해있는 인도 북부에도 일찍부터 이슬람교가 전해졌고, 13세기 초부터는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가 이어졌다. 카스트제에 불만이 많던 하층민들은 이슬람교를 환영했다.

↓ **델리의 미나렛**(인도) 델리 지역을 정복한 왕조가 이를 기념해 세운 탑이다. 힌두교에 대한 이슬람교의 승리를 상징한다.



함께 확인해요

❶ 셀주크 튀르크는 바그다드를 점령한 후 칼리프로부터 □□(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❷ **생각 UP** 아바스 왕조와 우마이야 왕조의 통치 방식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은 무엇일까?

생각 쑥쑥 탐구

이슬람 문화의 발전과 확대

이슬람 왕조가 지배한 지역에서는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공통 요소로 하는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였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가 서로 섞이고 전파됐습니다. 제지술이나 나침반, 화약 같은 중국의 발명품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슬람 문화의 주요 특징을 알아볼까요?



↑ **지혜의 집** 아바스 왕조가 운영한 도서관으로 세상의 여러 지식을 수집해 아랍어로 번역하고 연구했다.

01 이슬람교 중심의 문화, 『쿠란』과 모스크

이슬람교는 종교를 넘어 일상생활까지 영향을 미쳤다. 『쿠란』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쿠란』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규칙까지 세세히 규정했기 때문에 일종의 법전 역할도 했다.

이슬람교 사원을 모스크라고 하는데, 크고 화려한 모스크는 이슬람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슬람교는 우상숭배를 철저히 금지했기 때문에 모스크는 추상적인 아라베스크 무늬나 『쿠란』 구절로 장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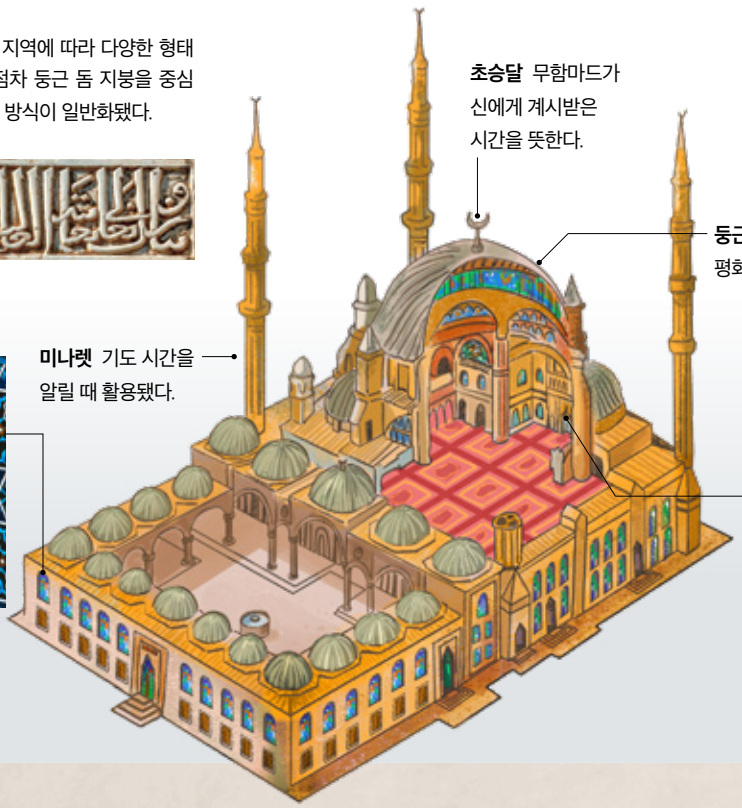


← **『쿠란』** '쿠란'은 아랍어로 쓰였는데,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슬람 문화권은 아랍어를 공용어로 받아들였다.

↘ **모스크의 구조** 초기에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스크가 만들어졌지만, 점차 둥근 돔 지붕을 중심으로 주변에 미나렛을 세우는 방식이 일반화됐다.



벽에 새겨진 『쿠란』 구절



초승달 무함마드가 신에게 계시받은 시간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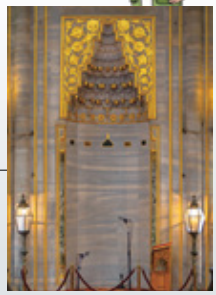
초승달에는 '진리의 시작'이라는 뜻도 있어.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에는 대부분 초승달이 그려져 있어.

둥근 돔 지붕 평화를 상징한다.

미나렛 기도 시간을 알릴 때 활용됐다.



아라베스크 다각형, 직선, 곡선 또는 식물의 줄기 문양을 반복해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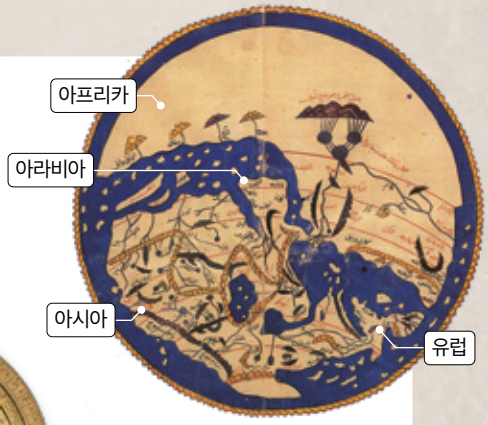
미흐랍 메카의 방향을 알려 주는 장식물이다.

02 이슬람 문화와 함께 발달한 과학

지리학과 천문학 이슬람교도들은 성지 메카를 순례할 의무가 있었다. 넓어진 이슬람 세계 곳곳에서 메카로 오는 길을 안내할 지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리학이 발달했다. 사막과 바다를 누비며 교역하던 이슬람교도들은 하늘의 태양과 별을 보며 방향과 시간을 알아냈다. 이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태양의 운행을 측정해 정확한 달력도 만들었다. 이들의 천문학 지식은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도 전해졌다(109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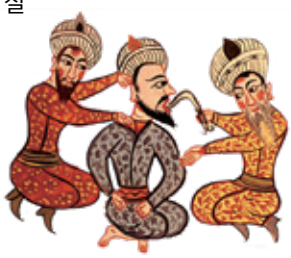


→ **아스트롤라베**(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태양과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방향과 시간을 알아내는 용도가 더해져 항해에도 이용됐다.



↑ **이슬람의 세계 지도**(영국 보드레이언도서관) 알 이드리시라는 지리학자가 만든 지도이다. 메카가 있는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지도를 표현했다.

화학과 의학 이슬람 학자 중 일부는 흔하고 값싼 물질을 섞어 값비싼 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몰두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실험 방법이 개발됐고 새로운 용어도 만들어졌다. 한편 실용적인 이슬람 의학은 유럽으로 전해져 17세기까지 의학 교과서 역할을 했다.



→ **치과 치료 모습**

아랍어	영어	의미
a-kohl	alcohol	알코올
al-qaliy	alkali	알칼리
al-kimya	alchemy	알케미(연금술, 화학)
al-khawarizmi	algorithm	알고리즘(셈법)

↑ **아랍어에서 유래한 과학 용어들** '알고리즘'은 9세기 페르시아의 수학자 '무함마드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03 다양한 문화의 융합, 『천일야화』

이슬람 세계가 넓어지면서 아라비아반도를 중심으로 서쪽의 유럽과 아프리카, 동쪽의 페르시아와 인도,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문화가 서로 만나고 섞였다. 이런 융합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아라비안나이트』로 알려진 『천일야화』이다. 『천일야화』는 1001일 밤 동안 이어진 이야기라는 뜻으로, 페르시아의 설화를 바탕으로 아랍과 인도 등 주변 지역의 이야기가 계속 추가되어 오늘날과 같은 형태로 정리됐다. 신드바드의 모험, 하늘을 나는 양탄자, 알라딘의 요술 램프 등 다양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신드바드의 모험을 표현한 그림**

함께 탐구해요

❶ 이슬람 문화에서 천문학과 지리학이 크게 발달한 이유는 무엇일까?

❷ 논술 UP♪ 『천일야화』 속 주인공은 신드바드나 알리바바처럼 뱃사람 또는 상인이 많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슬람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❸ 검색 UP♪ 한국에도 모스크가 있는지 검색해 보자.

주제

15 봉건 질서의 형성과 교황권의 확대

관련 주제 → 주제13(78쪽)

핵심 질문

봉건제 아래의 서유럽 사회에서 교황과 황제가 대립한 까닭은 무엇일까?

중세 서유럽 봉건 사회 구조

01 봉건제의 성립

카롤루스 대제가 죽고 9세기에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면서 유럽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❶**바이킹**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침입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바이킹은 해안뿐 아니라 내륙까지 침략했다.



바이킹의 침입

이때 침략자를 막아 낸 기사들이 각 지역에서 성장했고, 농민들도 자신을 보호해 준 기사를 지배자로 받아들였다. 계속된 침략으로 권력이 약해진 왕은 세력이 큰 기사를 **영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영주는 왕에게 충성하는 대가로 제후(공작, 백작 등 작위를 받고 대대로 영지를 다스리는 사람)가 되어 자신의 지역(영지)을 **장원** 형태로 다스렸고, 자신을 따르는 기사들에게 땅을 나눠 주거나 급여를 주며 충성을 맹세하게 했다. 이렇게 여러 겹의 주종(주인과 그를 따르는 사람) 관계를 바탕으로 한 **봉건제**가 서유럽에 자리 잡았다.

❶ **바이킹** 바이킹은 발트해 주변 북유럽에 살다가 배를 타고 내려온 게르만족으로, 노르만족도 여기에 속한다. 이들 중 일부는 유럽 곳곳에 정착해 나라를 세웠다.

장원의 모습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기사

영주 영주는 세금을 걷고, 재판하는 등 자기 영지에 대해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다스릴 권한이 있었다. 대신 자신이 모시는 왕이나 제후가 부르면 기사들을 거느려 전쟁에 나갔고, 충성의 표시로 공물을 바쳤다.

기사 어릴 때부터 승마, 검술, 창술을 연마하고 예의범절을 익혀 왕이나 제후의 인정을 받아야 기사가 될 수 있었다.



농노 장원에서 일하는 농민으로, 가족과 함께 살며 집과 재산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며칠은 영주의 땅에서 일해야 했다. 또한 각종 세금과 공동 시설(방앗간, 대장간, 목초지, 숲 등) 이용료를 내야 했고, 허락 없이 장원을 떠날 수 없었다.

수확하는 농노들

탐구 ❶ 농노의 처지가 노예보다 나은 점은 무엇일까?

02 교황과 황제의 대립

바이킹 등 외부의 침략이 계속되자, 교회는 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왕이나 제후에게 보호를 요청했다. 왕과 제후는 그 대가로 **성직자 임명**에 관여해 자신들과 가까운 사람을 주교나 수도원장으로 임명하는 일이 늘었다.

자격 없는 성직자가 늘면서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은 세속 권력(왕, 제후 등이 지닌 정치 권력을 주로 뜻함)이 신성한 교회 일에 간섭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대립 끝에 ❷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 꿇는 사건(**카노사의 굴욕**, 1077)이 일어났고, 교황의 권위는 더 높아졌다.

❷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후 서로마 황제 자리는 동쪽 유목민의 침입을 막아낸 동프랑크 왕국에 넘어갔다. 이후 동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불렸다.

황제는 왜 교황에게 무릎을 꿇었을까?

수도원 출신으로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는 교회 개혁 운동을 이끌며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하인리히 4세는 성직자도 황제의 백성일 뿐이라며 맞섰다. 이에 교황이 그를 파문해 크리스트교 세계에서 쫓아내겠다고 위협하자, 제후들이 황제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황제는 교황이 있는 카노사성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성직자 임명권**을 둘러싼 세속 권력과 교황의 다툼은 이후에도 이어졌다.



➔ **카노사의 굴욕** 하인리히 4세가 카노사성의 성주인 백작 부인과 클뤼니 수도원장에게 교황과 화해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다.

탐구 ② 황제가 왜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려 했을까?

일상을 지배한 가톨릭교회


장원의 중심에는 영주의 성과 함께 교회가 있구나. 이 시기 교회는 중요한 시설이었던 것 같아.


맞아. 영주는 교회의 성직자와 영지의 일을 의논했고, 천국을 희망하며 땅과 재물을 바쳤다고 해.


농민들에게도 교회는 중요한 장소였어. 일요일에 교회에 나가 기도를 했고, 여러 성사를 받기 위해 신부를 찾아갔지. 추수 때는 수확물의 10분의 1을 십일조로 바치며 하느님께 감사함을 표현했어.


교회를 떠나서는 태어날 수도, 살 수도, 죽을 수도 없었구나.


↑ **성사** 하느님의 은혜를 받는 크리스트교 예식이다. 크리스트교도가 되는 세례 성사, 결혼할 때 받는 결혼 성사, 잘못한 일을 고백하는 고해 성사, 아프거나 죽을 때 받는 종부 성사 등이 있다.


↑ **천국과 지옥** 교회는 글을 모르는 농민에게 성경을 표현한 그림 등으로 교리를 가르쳤다. 그러나 농민들은 이를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거나, 여전히 민간 신앙을 따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함께 확인해요

❶ 영주의 장원에 속해 있는 농민들을 □□(이)라고 한다.

❷ 카노사의 굴욕 사건은 □□□ □□□을/를 두고 교황과 황제가 다툰 사건이다.

생각 쑥쑥 탐구

같은 하느님을 믿는 두 개의 교회

중세 서유럽과 비잔티움 제국은 모두 하느님을 섬기며 크리스트교를 믿었지만, 교회 조직은 로마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로 나뉘었습니다. 이에 교회 건물이나 종교 생활 등에서 각자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두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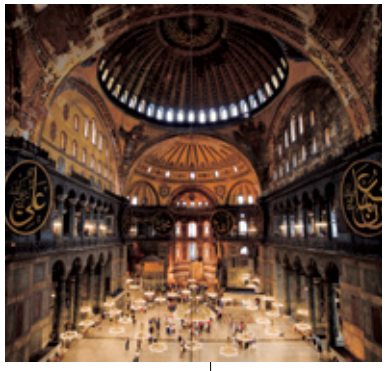
01 비잔티움 문화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헬레니즘 문화의 전통 위에 그리스 정교가 결합해 독특한 문화가 발전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을 계승해 라틴어를 썼으나 6세기 이후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썼고, 이슬람 세력과 맞서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성당을 비롯한 비잔티움 양식의 교회들은 비잔티움 문화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비잔티움 문화는 이후 키예프 공국을 비롯한 동유럽과 러시아로 전해졌다.

성 소피아 성당(튀르키예 이스탄불) 비잔티움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정교한 모자이크 벽화로 치장한 내부와 거대한 돔 지붕을 가진 외부가 특징이다. 비잔티움 제국이 이슬람 세력에게 멸망한 후 성당은 모스크가 됐다.



성당 내부 모자이크화



성당 내부 돔



키릴 문자 9세기 비잔티움 제국의 선교사들은 그리스 정교를 슬라브인에게 전파하기 위해 그리스 문자를 변형한 키릴 문자를 만들었다. 오늘날 러시아와 동유럽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폐와 성 소피아 성당(우크라이나 키이우)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영향을 받아 키이우에도 13개의 돔을 가진 비잔티움 양식의 성 소피아 성당이 만들어졌다. 지폐에는 옛 모습이 그려져 있지만, 몽골의 침입으로 파괴된 후 현재 모습으로 다시 지어졌다.







02 중세 서유럽 문화

라틴어를 공용어로 쓴 서유럽은 로마의 유산과 게르만의 전통 위에 가톨릭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전했다. 가톨릭교회의 세력이 커지면서 지역마다 거대한 교회가 지어졌고, 고딕 양식이라는 새로운 건축 양식이 발달했다. 학문의 중심지로 수도원과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봉건제의 영향으로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유행했다.



↑ **필사하는 수도사** 수도사들은 성경을 포함한 다양한 책을 옮겨 쓰며 신학을 공부했다. 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철학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은 신학의 시녀'라는 말도 생겼다.



↑ **볼로냐 대학 강의 모습** 12세기 들어 교회나 수도원을 기반으로 교수 조합과 학생 조합이 대학을 설립했다. 대학은 외부 간섭 없이 독립성을 유지하려 노력해 '학문의 자유'라는 개념이 생겼다.



↑ **「아서왕 이야기」** 아서왕은 영국의 전설 속 왕으로, 다양한 모험담이 전해지고 있다. 이 시기 기사도 문학은 기사들의 사랑과 결투, 왕과 신하 사이의 충성과 반역 등을 소재로 다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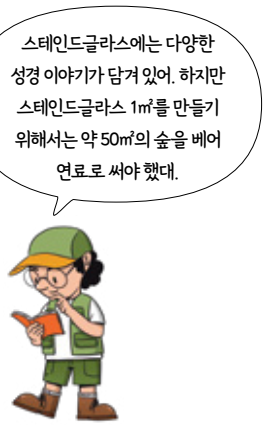
↓ **노트르담 대성당**(프랑스 파리) 고딕 양식은 하늘을 향해 치솟은 뾰족탑과 옆에서 기둥을 받치는 날개 기둥, 그리고 아치형 천장과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가 특징이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고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노트르담은 '우리의 귀부인'이라는 뜻이며 성모 마리아를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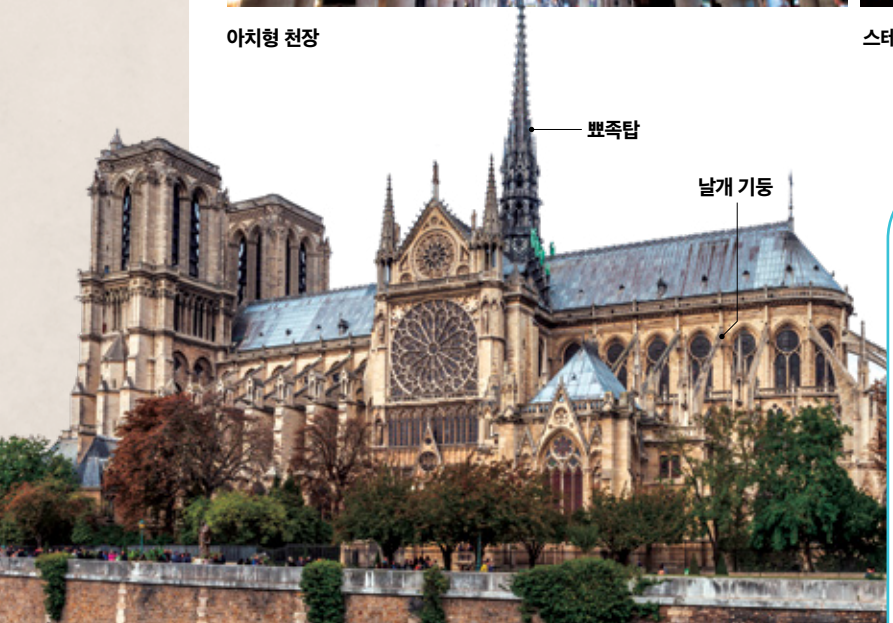


아치형 천장



스테인드글라스





함께 탐구해요

❶ 검색 UP› 한국에도 그리스 정교 교회가 있는지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한국 정교회

❷ 검색 UP› 유럽의 대표적인 고딕 양식 성당을 검색해 보자.
추천 검색어 솔즈베리 대성당, 샤르트르 대성당, 쾰른 대성당

❸ 논술 UP› 서유럽 문화와 비잔티움 문화를 비교해 보자.

주제

16 십자군 전쟁과 그 영향

관련 주제
주제18(106쪽)
주제24(124쪽)
주제27(132쪽)

핵심 질문
십자군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각각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01 십자군 전쟁의 전개

로마 교황은 이슬람 세력에게서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고 서유럽인들에게 호소했다(1095).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에 고전하던 비잔티움 제국이 교황에게 지원을 청하자 이에 화답한 것이다. 많은 왕과 영주, 기사, 상인, 농민이 이에 호응해 **십자군**이 조직됐다.

제1차 십자군은 많은 이슬람교도를 학살하며 곳곳에 크리스트교 국가를 세우고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하지만 곧 이슬람 세력이 반격해 점령지 대부분을 빼앗겼다. 이후 200년간 여러 차례 십자군이 조직됐지만, 끝내 예루살렘 탈환에 실패했다.



↑ **예루살렘을 공격 중인 십자군**



↑ **십자군 전쟁의 전개**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이슬람교도와 유대교도가 신의 심판이라는 명목으로 학살됐다. 십자군 전쟁은 이베리아반도에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자는 탈환 운동으로도 이어졌다(82쪽 참고).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일어났을까?

십자군 전쟁은 종교적 열정뿐 아니라 현실적 이익을 추구한 전쟁이었다. 나중에는 성지 탈환과 무관하게 전쟁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제4차 십자군 때는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이자 도움을 요청했던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십자군이 점령해 약탈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탐구 ① 각 계층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까닭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교황	왕과 제후	상인	농민
			
•	•	•	•
•	•	•	•
전쟁에 이겨 더 넓은 영토, 새로운 영지를 차지하리라.	장원을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야.	동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큰 이익을 얻어야지.	크리스트교 세계 전체를 나의 통제 아래 두리라.



↓ **세 종교의 성지 예루살렘**(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성전의 흔적, 예수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곳,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해 계시받았다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유대교, 크리스트교, 이슬람교가 모두 성지로 여긴다.

02 지중해 무역권의 발달

십자군 전쟁은 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전쟁 중에 상인들이 오가며 지중해 무역이 크게 발달했다. 이에 베네치아, 제노바 등 이탈리아 도시가 무역 중심지로 번성했다. 이런 무역은 북유럽으로도 확대됐고, 이 지역의 상업 도시들은 ❶**한자 동맹**을 맺어 서로 협력했다.

지중해 무역의 발달로 문화 교류도 활발해졌다. 이슬람 세계가 보전하고 있던 그리스·로마 문화가 서유럽에 다시 알려졌고, 이슬람의 과학 기술과 문화도 전파됐다. 그 결과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의 가치를 재발견하려는 새로운 문화 운동인 **르네상스**가 일어났다(94쪽 참고).



↑ **십자군 전쟁 이후 발전한 도시들**

❶ **한자 동맹** 한자(HANSA)는 독일어로 상인 조합을 뜻한다. 상업이 발달한 북독일 도시들이 결성해 유럽 내의 무역을 주도했다. 이들은 국가에 맞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세력이 컸다.

03 중세 도시의 성장과 장원의 해체

상업과 무역으로 부유해진 상공업자들은 **도시**를 발전시켰다. 이들은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치권을 돈으로 사거나 힘으로 획득했다. 도시민들은 시의회를 구성해 도시를 스스로 다스렸다. 농노도 도시로 도망쳐 1년 넘게 살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런 가운데 14세기 중엽부터 **흑사병**이 크게 유행했다. 많은 사람이 죽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의 지배력은 더 약해졌고 농노의 지위는 향상됐다. 돈을 내거나 도시로 도망쳐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농노도 많아졌다. 그 결과 장원은 점점 해체됐고, 서유럽의 봉건 사회도 저물어 갔다.



↑ **영주에게 특허장을 받는 도시민** 특허장은 자치권을 인정하는 증서였다. 도시의 성벽을 '부르그', 그 안에 사는 상공업자를 '부르주아'라고 불렀다.

• 유럽을 죽음의 공포로 휩쓴 흑사병

흑사병은 페스트균에 의해 피부가 검게 변하며 죽는 무서운 전염병이야.

14세기에 중앙아시아에서 시작해 유럽과 인도, 중국 등 전 세계로 퍼졌어. 특히 유럽인의 3분의 1 이상이 사망했대.

성직자와 영주들도 흑사병을 피할 수 없었어. 그래서 교회와 영주의 권위가 크게 떨어졌고, 일할 사람이 없는 장원은 황폐해졌다고 해.

탐구 ② 흑사병의 유행은 유럽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 **화형 당하는 유대인들**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어 흑사병을 퍼뜨린다는 소문이 돌아 곳곳에서 유대인 학살이 벌어졌다.

↓ **「죽음의 춤」** 흑사병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04 교황권의 약화와 왕권의 강화

교황의 권력은 십자군 전쟁 때 절정에 달했다. 영국과 프랑스의 왕들도 성지를 되찾자는 교황의 말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원정에 나설 정도였다. 하지만 예루살렘 탈환 실패로 교황의 권위는 추락했고, 흑사병은 이런 경향을 더욱 부추겼다.

반면 왕의 권력은 더 커졌다. 14세기 초 프랑스 왕은 성직자에게 세금을 거두는 문제로 교황과 대립했다. 이에 프랑스왕은 군대를 동원해 교황을 체포하고 교황청을 로마에서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 자신의 통제 아래 두었다. 이후 로마와 아비뇽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는 혼란을 겪으며 교회의 권위는 더욱 떨어졌다.



백년 전쟁이 왕권에 끼친 영향

14세기 중엽에 왕위 계승 문제와 프랑스 안에 있는 영국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놓고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 전쟁(1337~1453)을 벌였다. 긴 전쟁을 치르며 영주와 기사가 많이 희생됐다. 게다가 화약 무기의 보급으로 (㉠)의 중요성이 크게 떨어졌다. 이에 반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는 권한이나 군사를 동원하는 권한이 (㉡)에게 집중됐다. 특히 프랑스는 노르망디와 플랑드르 등 왕국 안에 있던 영국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됐다.



➔ **잔 다르크** 영국은 한때 프랑스 영토의 절반을 차지했으나, 잔 다르크의 활약으로 프랑스가 전세를 뒤집어 전쟁에서 승리했다.

탐구 3 ㉠, ㉡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

탐구 4 백년 전쟁 이후 왜 왕권이 강해졌을까?

05 십자군 전쟁 이후 이슬람 세계의 변화

십자군 전쟁 당시 셀주크 튀르크는 내란이 일어나 쇠퇴하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군에 맞서지 못했다. 대신 이집트와 예루살렘 주변의 이슬람교도들이 십자군에 맞서 싸웠다. 이들은 결국 12세기 말에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았다.



↑ **살라흐 앗딘에게 항복하는 예루살렘 성주** 살라흐 앗딘은 십자군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은 술탄이다. 그는 몸값을 받는 조건으로 십자군 포로를 풀어 줬고, 크리스트교도의 예루살렘 순례를 허용했다.

13세기에 칭기즈 칸의 몽골군이 동쪽에서 침입해 중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대부분을 지배했다 (106쪽 참고). 몽골인은 이슬람교를 허용했고 이후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지배층도 많아졌다. 이슬람 상인들은 몽골 제국의 안정된 동서 교역망을 통해 더욱 활발히 무역 활동에 나섰고, 이슬람 세계는 더 넓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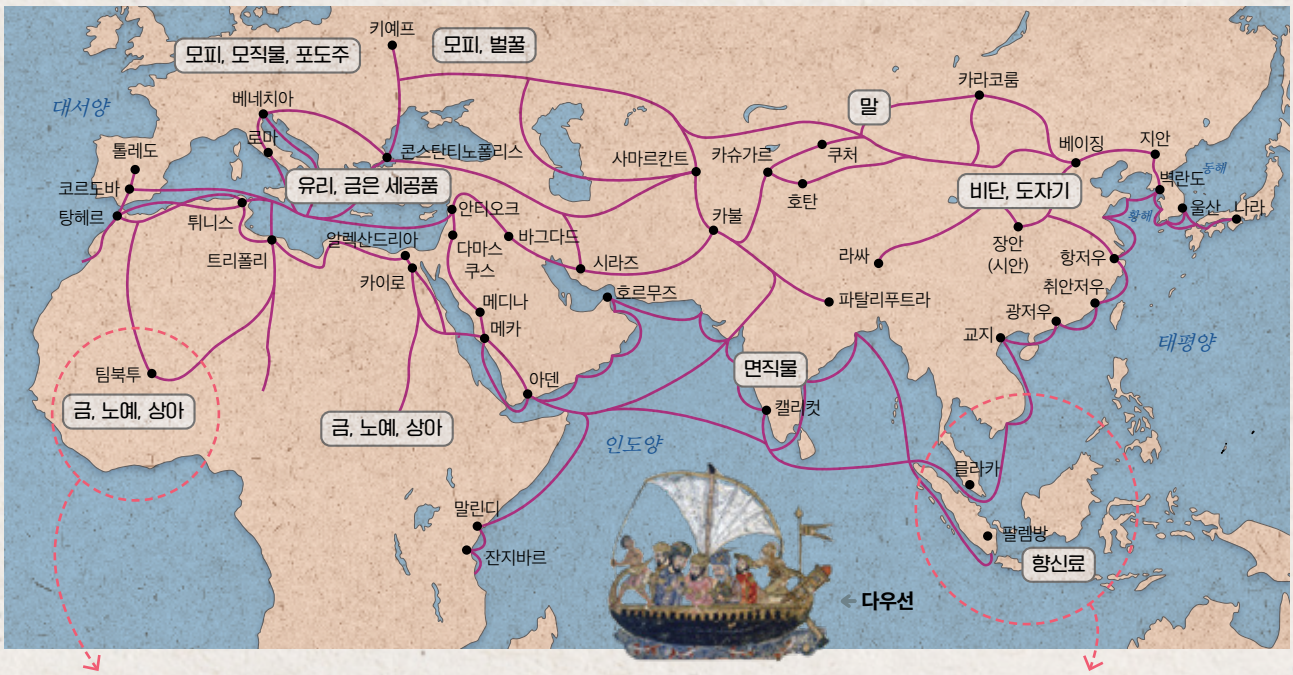


↑ **바그다드를 점령한 몽골군** 1258년에 몽골군은 셀주크 튀르크의 보호를 받던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했다.

● 세계를 무대로 활동한 이슬람 상인

예언자 무함마드는 상인 출신이었고, 이슬람교는 상업을 권장했다. 아랍과 페르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상인들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고 세계를 누비며 교역망을 넓혀 갔다. 특히 몽골 제국의 등장은 유라시아 교역로를 한층 안정시켰다(108쪽 참고). 이슬람 상인들은 육지에서는 낙타와 말, 바다에서는 목재 범선(다우선)에 몸을 싣고 세계를 누볐다. 이들의 활동으로 이슬람교는 더 널리 퍼졌다.

이슬람 상인의 국제 교역로 (13~14세기)



아프리카 내륙으로 퍼진 이슬람교

이집트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이슬람교는 이슬람 상인의 활동으로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까지 퍼졌다. 1240년 서아프리카에 세워진 이슬람 국가인 말리 왕국은 당시 전 세계 황금의 절반을 생산한다고 여겨질 만큼 부유했다.



말리 왕국의 만사 무사 1세 만사 무사 1세는 1324년에 한 마리당 100kg이 넘는 황금 덩어리를 짊어진 수십 마리의 낙타를 이끌고 메카 순례에 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동남아시아로 퍼진 이슬람교

이슬람 상인들이 바닷길로 드나들던 동남아시아에도 이슬람교가 전파됐다. 특히 믈라카 왕국은 15세기 초에 이슬람교로 개종한 후 동서 교역으로 번성했다. 이후 동남아시아 해양부에 이슬람교가 널리 퍼졌다.



인도네시아의 모스크(인도네시아 데막) 자와섬 중앙에 15세기에 지어진 모스크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독특한 모습이다. 오늘날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다.

함께 확인해요

❶ □□□ 전쟁은 성지 예루살렘을 되찾자는 교황의 호소에 유럽인들이 호응하면서 시작됐다.

❷ **생각 UP** 십자군 전쟁 이후 크리스트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에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

생각 쑥쑥 탐구

미켈란젤로의 생애로 살펴보는 르네상스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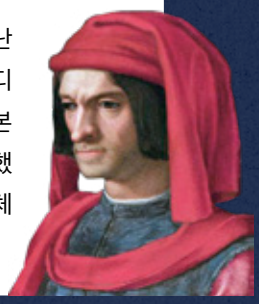


교회의 권위가 약해지자, 14세기부터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문예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르네상스는 인간적인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르네상스 시기 대표적인 예술가인 미켈란젤로의 발자취를 따라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01 메디치 가문의 후원으로 조각 수업을 받다

피렌체 출신의 미켈란젤로는 어릴 때부터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당시 피렌체는 금융업으로 부자가 된 메디치 가문이 다스리고 있었다.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메디치 가문의 로렌초는 그를 데려와 조각 수업을 받게 했다. 이후 미켈란젤로는 수도원 병원에서 해부를 통해 인체 골격을 공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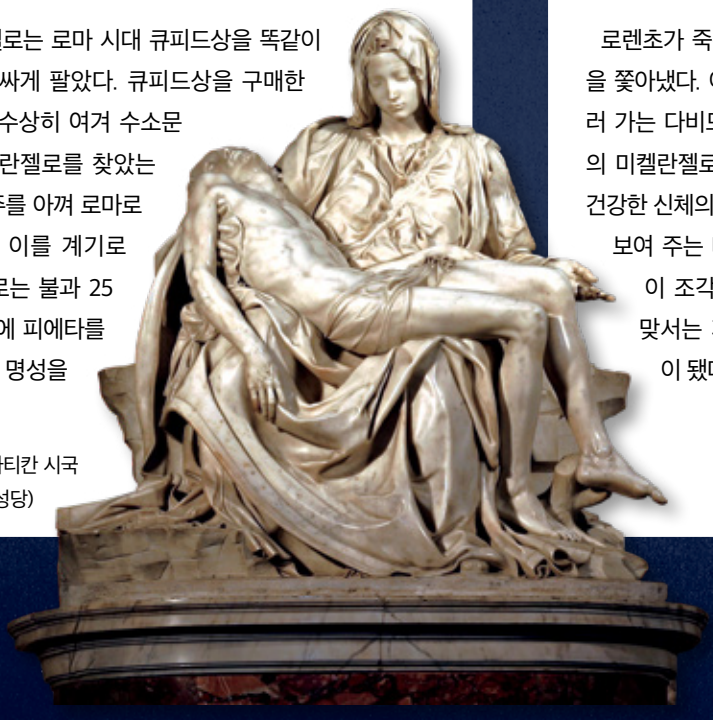




로렌초 데 메디치

02 위조품으로 기회를 얻어 '피에타'를 조각하다

미켈란젤로는 로마 시대 큐피드상을 똑같이 조각해 비싸게 팔았다. 큐피드상을 구매한 추기경이 수상히 여겨 수소문 끝에 미켈란젤로를 찾았는데, 그 재주를 아껴 로마로 초대했다. 이를 계기로 미켈란젤로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피에타를 조각해 큰 명성을 얻었다.



피에타(바티칸 시국 성베드로대성당)

03 피렌체 공화국 시민을 위해 '다비드상'을 만들다

로렌초가 죽은 후 시민들은 메디치 가문을 쫓아냈다. 이를 기념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는 다비드상을 제작하려 했다. 26살의 미켈란젤로는 3년간 정성을 쏟아 건강한 신체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다비드상을 조각했다. 이 조각상은 메디치 가문에 맞서는 피렌체 시민의 상징이 됐다.



다비드상(이탈리아 아카데미아미술관)

04 교회의 간섭을 물리치고 '천지창조'를 완성하다

미켈란젤로의 명성은 교황에게 알려졌고, 교황은 그에게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부탁했다. 천장의 높이는 무려 22m, 면적은 모두 800㎡였다. 33세의 미켈란젤로는 불편한 자세로 떨어지는 물감을 맞으며, 4년에 걸쳐 「천지창조」를 천장과 벽에 그렸다. 등장인물만 340명이 넘는 이 대작을 그리는 동안 미켈란젤로는 교회의 간섭을 피하고자 완성할 때까지 그림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 **「천지창조」 중 「아담의 창조」**(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05 '최후의 심판'에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리다

시스티나 성당 VR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다시 시스티나 성당의 정면 벽화를 요청했다. 60대에 접어든 미켈란젤로는 가로 12m, 세로 13.7m의 거대한 공간에 6년에 걸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교회는 그의 그림에 불만을 표현했다. 예수와 성인들이 후광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인 데다, 천사들도 날개가 없었기 때문이다. '목욕탕 같다'라는 비난까지 있었다. 한 추기경이 계속해서 수정을 요구하자, 미켈란젤로는 그의 얼굴을 지옥의 사신 미노스로 그려 복수했다. 결국 미켈란젤로가 죽은 후 민감한 부분을 가리는 덧칠 작업이 이뤄졌다.



↑ **「최후의 심판」**(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



함께 탐구해요

다음 언급된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분위기를 미켈란젤로의 생애에서 찾아보자.

분위기 ① 이탈리아에는 고대 로마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고, 비잔티움 제국에서 많은 사람이 이동해 와 고대 그리스 유산도 함께 전해졌다. 사람들은 잊혔던 그리스·로마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열광했다.

분위기 ② 피렌체, 베네치아 등의 이탈리아 도시들은 십자군 전쟁을 거치며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발달했다. 이 도시들은 왕이나 귀족, 교회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분위기 ③ 무역으로 부를 쌓은 상인 중에는 예술가와 예술 활동을 후원하는 사람도 여러 명 있었다.

분위기 ④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의 개성과 이성을 존중하는 '인문주의(휴머니즘)'가 유행했고, 원근법을 이용한 사실적인 그림, 인체의 아름다움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그림과 조각이 인기를 끌었다.

분위기 ⑤ 르네상스를 거치며 예술가들은 그저 왕이나 귀족, 교회의 주문을 받아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예술가라는 자각을 가졌다.

창의 쑥쑥 활동

개인 활동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골라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활동 방법

❶ 문화유산 고르기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유산 중 방문하고 싶은 곳을 고릅니다.

❷ 내용 구성하기

소개하고 싶은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어떤 순서로 소개할지 정리합니다.

❸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카드 뉴스 만들기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이 알려주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접속한 후,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 카드는 5~10장을 이용할 수 있고, 카드마다 제목, 사진 또는 그림, 글을 넣습니다.
- 첫 번째 카드에는 제목과 시작하는 글을 배치합니다.
- 마지막 카드에는 과제를 수행하며 새로 알게 된 점, 역사적 교훈, 현재 의미, 수행 소감 등 마무리 글을 씁니다.
- 각 카드의 제목과 글은 직접 쓰고, 사진과 그림은 인터넷에서 검색해 링크를 걸거나 내려받아 넣습니다.

❹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 감상하고 평가하기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를 살펴보고, 가장 잘했다고 생각한 카드 뉴스에 어떤 점이 좋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칭찬 댓글을 남깁니다.

유의 사항

- 사진이나 그림을 내려받아 올린 경우, 출처를 꼭 표기합니다.
- 다른 친구의 카드 뉴스에 평가 댓글을 남길 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활동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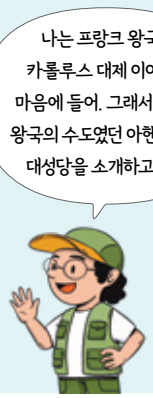
지역의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 만들기

카드 뉴스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뉴스 보도의 형태로, 주로 이미지를 많이 활용합니다. 이번 단원에서 배운 여러 지역 중 하나를 골라,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카드 뉴스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하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온라인 협업 플랫폼에 카드 뉴스를 올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봅시다.

01 문화유산 고르기

우리가 배운 지역

- ☐ 중국
- ☐ 인도
- ☐ 서아시아
- 예시 ☑ 유럽



02 내용 구성하기

어떤 내용으로 구성할까?

예시



1번 카드
아헨 대성당은 어떤 곳일까?



2~4번 카드
아헨 대성당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요소들



5~8번 카드
카롤루스 대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헨 대성당



9번 카드
아헨 대성당의 현재 의미
= 유럽 통합의 상징

03 카드 뉴스 만들기

예시

카드 뉴스 제목과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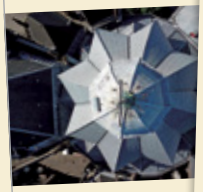
1
프랑크 왕국의 문화 중심, 아헨 대성당



카롤루스 대제가 건설한 아헨 대성당은 로마 제국의 유산과 게르만족의 전통, 그리고 크리스트교 문화가 어우러진 ……

카드 뉴스 주제 1 아헨 대성당에서 찾을 수 있는 문화 요소들

2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 팔각형



문화적으로 뒤처져 있던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발달한 문화 들이려 했어요. ……

3
비잔티움 제국의 영향, 모자이크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교회의 내부에 색색의 타일을 붙여 모자이크 그림을 그려 장식했는데, ……

4
나중에 더해진 고딕 양식



팔각형 본당 서쪽의 뾰족탑이나 동쪽 건물의 스테인드글라스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던 ……

카드 뉴스 주제 2 카롤루스 대제의 흔적이 남아 있는 아헨 대성당

5
카롤루스 대제와 아헨 대성당



아헨 대성당은 카롤루스 대 전 안에 있던 성당이자 왕실 에요. ……

6
카롤루스 대제의 왕좌



아헨 대성당 안에는 카롤루스 대제가 앉았던 왕좌가 보존되어 있어요. ……

7
카롤루스 대제의 유골과 관



이곳은 카롤루스 대제가 묻힌 곳이기도 해요. ……

8
프랑크 왕국의 보물 보관소



카롤루스 대제의 왕관과 크리스트교의 성스러운 유물 등이 보관되어 있어요. ……

카드 뉴스 마무리

9
유럽 통합의 상징, 아헨



오늘날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를 하나로 다스렸던 카롤루스 대제는 유럽 통합의 상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



[칭찬 댓글]

아헨 대성당이 오늘날 가지는 의미에 대해 잘 알게 됐어.

평가하기

- 해당 시기 역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선정했나요?
- 문화유산을 소개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했나요?
- 보는 사람이 흥미를 느끼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했나요?
- 다른 친구의 결과물을 잘 살펴보고 구체적인 평가를 담은 칭찬 댓글을 남겼나요?

스스로 생각하는 대단원 마무리

문제로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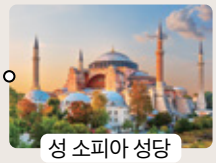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문제를 풀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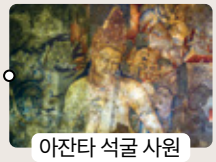
1 다음 문항을 읽고, 틀린 부분을 고쳐 맞는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1) 동진 이후 북조 왕조의 강남 개발로 강남의 경제력이 성장했다.
(2) 북위의 효문제는 유목민의 전통을 지키려는 정책을 펼쳤다.
(3) 수는 대운하를 건설해 화북의 물자를 강남으로 운송했다.
(4) 당은 흉노를 정복해 유목 세계까지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했다.
(5) 당의 수도 뤄양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국제적 도시였다.

2 서로 관련 있는 나라와 문화유산을 연결해 보자.

굽타 왕조 ○ ○ 
우마이야 모스크

프랑크 왕국 ○ ○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티움 제국 ○ ○ 
아잔타 석굴 사원

우마이야 왕조 ○ ○ 
아헨 대성당

3 [보기]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해 보자.

[보 기]

㉠ 카노사의 굴욕 ㉡ 아바스 왕조의 성립
㉢ 교황, 아비뇽에 유배 ㉣ 제1차 십자군 전쟁
㉤ 바이킹의 침입

추가 확인 문제

역사로 세상 읽기

다음 자료를 읽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종교는 분쟁의 씨앗일까, 평화의 도구일까?

01 지하드? 십자군 전쟁?



2001년에 일어난 9·11 테러의 모습이야.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은 '지하드(성전)'라며 이 사건을 일으켰고, 미국은 이런 테러와의 전쟁을 '십자군 전쟁'에 비유했어.



지하드는 원래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맞서는 굳센 노력을 뜻해. 민간인을 공격한 테러를 지하드라고 할 수는 없지.



십자군 전쟁을 언급한 미국 대통령의 발언도 경솔했다는 비판이 있어. 이슬람 국가와 이슬람교도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종교 갈등을 유발했기 때문이지.

02 경계해야 할 종교적 극단주의

십자군 전쟁에서 보듯 종교 대립만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뒷면에는 영토와 자원, 경제적 이익, 정치권력을 둘러싼 갈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무시하고 종교나 문명의 충돌로 전쟁을 단순화하면 갈등이 더 커질 위험성이 높다. 오히려 인류는 늘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과 공존하며 살아왔다.

다만 종교적 극단주의는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경전과 교리를 절대불변의 진리로 믿고 이를 그대로 실천하려는 경향을 '근본주의', '원리주의', '극단주의'라고 한다. 이런 종교적 극단주의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늘날의 보편 가치와 맞지 않는 종교적 믿음을 강요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03 종교 간 화합과 평화를 위한 노력

2011년에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평화를 위한 종교 간 기도 모임'에서 크리스트교의 이름으로 자행된 역사 속 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보다 앞서 2001년 그리스를 방문한 요한 바오로 2세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한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을 '교회가 저지른 범죄'라며 정식으로 사과했다.

종교는 대부분 진리나 절대자에 대한 믿음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른 종교와 대화하며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례는 다른 종교에서도 두루 찾아볼 수 있다.



나는 한 사람의 크리스트교도로서, 지난 역사에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는 이 점을 크게 부끄러워하며 인정한다. 이는 분명히 신앙의 남용이며 크리스트교의 진정한 정신에 명백히 어긋난다.

← 교황 베네딕토 16세



검색해요

종교적 차원에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을 검색해 보자.

- 종교 간 화합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의 구호 활동
- _____

"전쟁을 종교나 문명의 충돌로 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_____ _____"